

제2050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스케일업 지원 집중할 때” 10



이건기 협회장 “6兆 지원 해외건설에 단비” 23

코스피(9월) 1993.70 (-16.30P)  
코스닥 657.02 (-12.35P)  
환율(달러당 원화) 1127.70 (+8.7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796% (-0.008%p)



코스피지수가 기해년 증시 개장 이래 만에 2000선이 붕괴된 3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전 거래일보다 16.30포인트(0.81%) 하락한 종가 1993.70이 표시돼 있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건 지난해 10월 30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오승현 기자 story@

## ‘아마존 코리아’도 고강도 세무조사

구글 이어... 해외 IT기업 실태 파악

국세청이 최근 구글코리아에 이어 아마존 한국법인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 (Amazon Web Services Korea, 이하 아마존코리아)’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시작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아마존코리아에 파견, 이달 말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아마존은 2013년 5월 ‘아마존 코퍼레이트 서비스 코리아 (Amazon Corporate Services Korea)’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 코퍼레이트 서비스 코리아는 2015년 1월 현재의 법인명으로 사명을 바꾸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IT업계 등은 구글코리아 등 관련 기업에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의 연관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국회가 분회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온라인 광고, 동영상 등을 포함한 전자영역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동종업계는 국세청이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에 상대로 실질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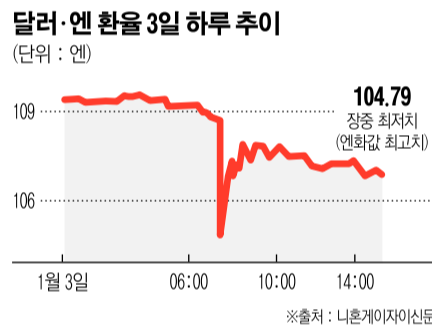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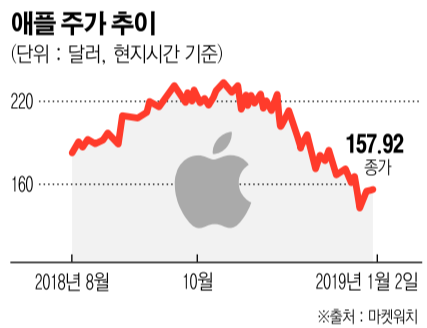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구글코리아 사옥에 파견, 3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애플 차이나 쇼크’에 코스피 2000선 붕괴

팀 쿡 “G2 무역분쟁 여파 中 부진”  
애플 매출 전망 하향 조정 ‘시장 맨붕’

코스피 2년1개월 만에 최저치로  
원·달러 환율 8.7원 오른 1127.7원

美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  
日 엔화값 작년 3월後 최고치 기록



‘애플 쇼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애플이 이례적으로 심각한 매출 부진을 실토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새해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3일 결국 2000선을 내렸다. >관련기사 6·14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30포인트(0.81%) 내린 1993.70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6년 12월 7일(1991.8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날 발표된 12월 중국 경기지표 부진에도 이날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약세로 전환, 한때 1991.65까지 하락했다. 장중 기준으로는 작년 10월 30일(장중 저가 1985.95) 이후 최저치다.

‘애플 쇼크’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엔화 환율이 폭락하면서 원·엔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말 수준으로 급등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127.7원에 마감됐

다. 전날보다 8.7원(0.78%), 큰 폭으로 올랐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2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2019회계연도 1분기(작년 10~12월) 매출이 840억 달러(약 94조2900억 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실적 발표 당시 제시한 자체 전망치 890억~930억 달러보다 5~10% 낮은 것이며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 910억 달러를 밑돈 것

이다.

애플 주가는 새해 첫 거래일인 이날 나스닥 정규 거래에서는 0.11%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실적 부진 경고에 시간의 거래에선 주가가 최대 8% 급락했다.

뉴욕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62%로, 작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하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에 수요가 몰린 것이다.

일본증시는 3일 신년 연휴로 휴장했지만 아시아 대기업 주가를 종합한 닛케이아시아300지수는 애플의 매출 부진 경고로 1% 이상 하락했다. 같은 날 미국채와 더불어 대표적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104년 선까지 치솟으면서 작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문선영 기자 moon@

## 첨단기술 기업 ‘해외매각’ 함부로 못한다

###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정부가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자에 대해서는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해마다 20건이 넘는 기술 탈취 시도가 적발되는 등 늘어나는 해외 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를 근절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M&A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도 지금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이 국가 핵심 기

### 국가 핵심기술 탈취형M&A 사전 승인제 도입

### 산업스파이에 손실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도

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해 산업기술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우려가 큰 M&A는 사전에 중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외국 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을 인수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과 비슷하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단장을 하반기부터 산업 기술과 기업 영업 비밀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에 대해

의 최대 3배를 보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기술 중 요도와 상관없이 최대 형량(징역 15년 혹은 벌금 15억 원)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기술 보호 범위를 넓혀 AI, 신소재 등 신산업 업종도 국가 핵심 기술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수요 못미치는 주택공급 올해도 서울 집값 오른다”

### 주택금융연구원, 상승폭 둔화 전망

공급보다 수요가 우세해 서울 집값이 올해도 올라갈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3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주택시장 결산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 예정 주택 물량은 47만 호다.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6만3000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지만,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격한 감소 추세이고 신규 주택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사업경기 실적지수를 보면 지난해 11월 전망치(기준선=100)는 47.4로 전월 대비 21.6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건설 수주 상황 악화와 입주 여건 악화로 분양사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 업체들의 인식이 반영됐다.

주택 공급 상황을 보면 수도권과 수도권 외 권역의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이후 거래 동향 지표가 악화했다. 수도권에선 정부 정책 영향으로 다소 변동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양적·질적 주택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주택 공급 감소로 서울의 주택 가격은 상승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봤지만 정책 효과 등으로 상승 폭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승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양적·질적 주택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분양주택 공급 감소로 서울의 주택 가격은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정책효과 등으로 상승 폭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삼성전자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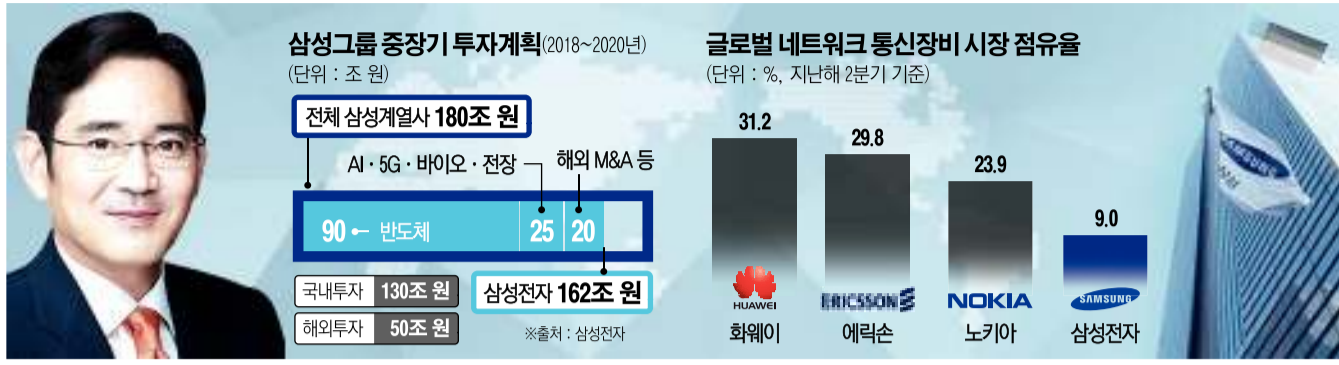
# 이재용, 새해 첫 행보 '5G'... "도전자의 자세로 뛰자"

### 5G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 참석 칩셋·단말 분야 등 경쟁력 강화 시장 주도 메시지 대내외 선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5G라인 가동식에 참석해 '도전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5G는 삼성이 지난해 8월 발표한 4대 신사업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이 꺾이면서 메모리반도체를 이을 주력 사업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엿보인다.

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5G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고동진 IM부문, 대표이사 사장, 노희찬 경영지원실장 사장, 전경훈 네트워크사업부장 부사



장 등 경영진과 네트워크사업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롭게 열리는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분기 기준 글로벌 네트워크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9%로 화웨이(31.2%)·에릭슨(29.8%)·노키아(23.9%)에 이어 4위다. 2017년 3.9%에서 두 배 이상 뛰었지만 아직은 선두권과 격차가 크다. 다만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세계 1위 기업인 화웨이의 5G 장비를 구매 금지 리스트에 올리면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도전자의 자세'를 강조한 것은 겸손한 자세로 차근차근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TV에서 소니를, 휴대폰에서 노키아를 누르고 1위로 오를 때도 차근차근 기술 경쟁력을 쌓으며 과감한 투자에 나선 게 주효했다.

특히 올해는 5G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5G는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기술이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5G 네트워크 장비 생산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 제조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칩셋, 단말, 장비 등 5G 사업 전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SKT와 KT 등 국내 통신사와 더불어 AT&T, 버라이즌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도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5G 시장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업계 최초로 5G 표준 멀티모드 모뎀 개발에 성공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5G 관련 기업인 '지랩스'를 인수했고, 12월 조직개편에서 네트워크사업 부장을 교체하며 5G사업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5G 스마트폰 출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미국에서 열린 '퀄컴 서밋'에서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시제품을 공개한 데 이어, 5G 기능이 적용된 첫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5G 장비와 단말, 칩셋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2016년부터 5G 글로벌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며 5G 표준 선도 업체로 부상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5G'를 선택한 것은 삼성이 '5G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와 메시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로 사업에 나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트렌드세터' 박성경 이랜드 부회장, 퇴진 속내는?

이랜드가 박성경(사진) 부회장의 퇴진을 결정했다. 경영 일선에 합류한 지 24년, 그룹 부회장에 오른 지 12년 만이다.

이랜드는 3일 부회장 인사를 포함한 조직 및 인사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박 부회장은 부회장직에서 물러나 이랜드재단 이사장을 맡게 되고, 박성수 회장은 경영 전반에 손을 떼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랜드 창업주인 박성수 회장의 동생인 박 부회장은 1984년 이랜드에 입사한 후 여성복 사업부와 생산총괄사업부 대표를 거쳤다. 1994년에는 이랜드월드 대표이

### 24년간 그룹 성장 이끌었지만 공격적 경영 탓 자금난 시달려

### 빛 갚기 위해 리테일 상장 시급 전문경영 체제로 위기극복 승부

사와 디자인 총괄 진두지휘했고 2006년부터 이랜드그룹의 부회장에 올랐다. 그는 부회장으로서 중국 거대 그룹, 아시아·유럽·미국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며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 등 그룹의 대외활동을 주로 맡아왔다.



트렌드세터로 불리는 박 부회장은 2013년 SPA(제조·유통 일괄화) 브랜드로의 전환을 주문해 글로벌 SPA의 공세 속에서도 '스파오', '미쏘', '미쏘시크릿' 등 패션 브랜드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신발 SPA 브랜드인 '슈펜'을 잇달아 론칭, 성공 반열에 올려놨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격적인 경영만큼 부채도 커졌다. 2013년 말 이랜드의 부채

비율은 한때 399%에 달했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이랜드는 전문경영인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으로 위기 극복에 나섰다. 2013년 8월 박 부회장은 이랜드그룹의 외식 레저 계열사인 이랜드파크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오너 일가가 일찌감치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이랜드그룹은 오랜 기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했지만, 박 회장의 영향력 탓에 전문경영인이 주도적인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이랜드는 2017년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1조 원 자본 유치 작업을 동시에 마무리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투자자 중 일부가 투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이랜드 입장에서는 당장 차입금 해결을 위해 이랜드리테일의 상장

이 급한 상황이다. 이랜드는 올해 이랜드리테일의 재상장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상장 성공을 위한 승부수로 오너의 퇴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경영 전반의 변화가 필요했던 이랜드는 박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제외하고 박 회장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경영 체제 개편의 핵심은 계열사별 이사회 중심의 운영 체제를 강화하고 독립경영 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박성수 회장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차세대 경영자 육성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랜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 대표이사 직급을 부회장과 사장으로 격상해 경영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선 기자 only@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 point**  
고객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Duty Free | 한성 | 현대G&F | 현대리마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홍남기 “금융문턱 높아… 신산업 도전 과감한 지원을”

## 범금융인 신년 인사회

최종구·이주열 금융당국 수장 참석  
“경제 회복 위한 중추적 역할 해야”  
“리스크 관리·금융혁신” 한목소리

금융당국 수장들은 기해년(己亥年)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금융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汎)금융 신년인사회에서 “현장에서는 아직도 금융 문턱이 높다고 하소연한다”며 “금융이 산업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주력 업종이나 기술·아이디어로 신산업을 창출하려는 기업에 더 과감하게 지원에 달라”며 “기술금융을 확충하고 기술평가 역량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은 이미 디지털이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있다”며 “금융혁신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이 갖춰진 만큼 혁신의 열매가 열리도록 금융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혁신을 가속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시장의 왜곡과 불완전한 부분을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금융당국 수장과 금융사 CEO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윤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택수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철학”이라며 “금융혁신은 이를 더 잘 이뤄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올 한 해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위험 관리에 힘써 달라

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우리 내부의 취약한 고리는 외부 여건이 안 좋아질 때 드러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부분을 재점검하고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인들이 생산적인 부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기업의 투자 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

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 둔화, 통상 마찰,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미저 신경 쓰지

못했던 위험 요인은 없는지 점검하고 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자금중개가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혜택이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새해 정책, 기업 호소 상당수 반영 이젠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 때”

### 상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

박용만 회장 “소모적 논란 벗어나 현안해결 위해 국가 역량 모아야”



2019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정책 방향에 기업들의 호소가 상당수 반영됐다. 세부 ‘디테일’을 잘 설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새해 경제정책에 대한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에 구조적 침체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운용의 묘까지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작년 말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 개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대한상의 신년인사회는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해 결의를 다지고 격려하는 경제계 최대행사로,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정·관·계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언행불일치’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를 25회나 언급하는 등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기조는 꿈쩍도 하지 않아 기업들은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등 다방면에서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박 회장은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 달러·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기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 하향세를 되돌리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대부분은 그 원인이나 해법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단기 이슈나 이해관계라는 허들에 막혀 변화의 동력을 잃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논쟁을 끝내는 사회적 담론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이들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국가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제안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일자리, 규제, 노사갈등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의 규제 시스템이 성장과 혁신을 막고 있는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또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 실직에 대한 공포가 항상 상존하는데 선진국 수준의 고용 유연성을 갖추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안들은 경제와 사회라는 전체적인(Holistic)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주문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유기농 녹차에서 얻은 카테킨을 함유한 메타그린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을 챙겨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 文 대통령, 이달 중순 대기업 총수들 만난다

###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 포함... 7일 中企·소상공인 초청 소주성 등 경제정책 기조 유지 속 친기업 행보 실효성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 대·중·소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는 등 경제 행보에 올인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까지 잡았지만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라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 데다 여당의 '대기업 때리기' 기조도 여전히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대기업, 중견기업, 지방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기업인을 초청해서 이달 중순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대통령과 모임을 하려고 한다"며 "아직 시기와 정확한 날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7일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200명 정도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신년회에서 대통령께서 했던 말의 연장선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 활력을 찾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성격의 모임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기업 초청 대상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총수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한상의가 중심이 돼 초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좀 더 격의 없이 자유롭게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솔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2일 열린 경제계 신년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외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처음으로 초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개혁에서 경제로 '우측 깜빡이'를 켜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올해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직접 나서 활발한 기업과의 소통으로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 개혁을 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 성동구 성수 수제화 희망플랫폼을 방문해 유홍식(왼쪽) 드림제화 대표 매장에 진열된 구두를 보다가 신고 있던 신발을 가리키고 연합뉴스

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겠다는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 3일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경제 일정으로 제조스타트업 창업 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한 것도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을 현장에서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해 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선으로 삼성, SK, LG의 총괄 부회장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한 것이나 3일 기업인과의 오찬도 그 연장선이다.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대기업 개혁 등 '기업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가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 문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민 기자 lawsdm@

## 문 의장 "선거제 개혁, 정당득표율로 의원 수 정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그것이 어려우면 (그것에) 가깝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정해될 것"이라며 "몇십 년 정치개혁 중 제일가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민생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겠다"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제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의장은 "지난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고도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 홍영표 "민생 경제·국회 개혁 성과낼 것"

### "국민 체감 경제 환경 조성"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올해는 민생 경제와 국회 개혁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자영업,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은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은 신속 처리인데, 330일이 걸린다. 두 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해 선진화법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지방분권 관련 법안, 경제 민주화 관련된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

## 靑 "트럼프에 보낸 김정은 친서, 비핵화·평화 정착에 긍정적"

청와대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부터 받은 친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친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연방정부의 섯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문제로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동네 편의점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안녕?**

“우리동네를 지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이 되어주세요”

가벼운 인사처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우리동네, 주위를 살피는 당신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실력보다 연줄 경쟁... 기재부 인사적폐 언제까지

내달 대규모 과장급 인사 앞뒤  
靑 행정관으로 가려 로비 치열  
인맥·학연 얽혀 '진흙탕 싸움'  
"뺨 없는 공무원들 한직 전전"

내달 초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꿀보직'을 향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매년 과장급 인사가 1년 동안의 근무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맥과 학맥을 동원한 연줄 대기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는 적폐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통상 매년 2월 초 대규모 과장급 인사를 한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과장급 인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 인사는 기재부 내 임시조직이었던 혁신성장본부 상시조직으로 전환되고 기재부에 3개 과가 추가 신설될 예정이라 인사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과장급 공무원들 사이에선 핵심 보직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려는 공무원들의 경쟁이 가장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경쟁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진흙탕식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최근 기재부 A 과장은 특정 지역 출신을 앞세워 청와대 행정관에 입성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청와대에 있는

같은 지역 선배가 힘을 써줬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 자리도 모 과장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대학과 출신 지역 등을 활용해 인사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장급뿐 아니라 국장급 인사도 마찬가지다. 서로 1급 승진에 유리한 위치로 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TK(대구·경북) 출신들이 인사 때마다 특혜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호남 인사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일각에서는 근무 실적 평가라는 얘기는 의례적인 뿐 연줄 대기가 횡행해 결국 힘 없는 과장들만 한직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경제수석부처인 기재부지만 꿀보직은 따로 있고, 고생만 하고 제대로 인지도 받지 못하는 자리가 있는 게 염연한 현실이다. 한직은 서로 피하려 하기에 가장 힘없는 공무원이 맡는다는 것이다. 인사 청탁으로 좋은 자리에 가면 또 다른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다.

결국 인사 적폐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타 부처 서기관급 공무원 B 씨는 "기재부는 행정고시 동기들이 많지만 자리가 한정적이라 보니 인맥을 이용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뺨 없고 힘 없는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이 싫어서 타 부처로 진출하거나 관심이 적은 부서에서 조용히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신재민 사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재부

### 현장에서

공무원 급수는 1주일 중 세종청사에 머무는 일수라고 한다.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역할 중 정부의 비중이 크다. 상급기관, 관계기관과 협의를 주된 업무라 사무실을 비우는 일이 잦다. 반면 사무관은 실무자다. 관리자의 정무적 판단이나 결정에 따라 각종 보고서와 회의 자료를 작성한다.

그런데 그 판단이나 결정 과정은 때론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대개의 관리자는 실무자에게 결정 과정이나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다. 번거롭고, 설명을 전적으로 납득하는 실무자도 적어서다. 실무자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도 그 중 한 명이다. 비상식적인 적자국채 발행 결정 과정과 KT&G와 서울신문 사

납득 안 되는 의사결정 구조  
상황 알수 없는 실무자는 불만  
"불편한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려 한 정황을 본 뒤 공직자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물론 그의 주장에는 허점이 많다. KT&G 및 서울신문 건과 관련해서 그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마땅한 근거도 없다.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신 씨가 실무자였다고는 하나 모든 논의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특히 KT&G 건과 관련해서 기재부 퇴직 전 관련 대비 문건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그럼에도 기재부의 대응은 아쉽다.

신 씨가 폭로를 하게 된 배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신 씨의 주장에서 '팩트' 오류만 찾는다. 적자국채 발행 결정을 앞두고 실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시 차관보의 지시가 수차례 오락가락한 배경, 그 과정을 지켜본 실무자가 모든 부담과 자괴감을 떠안아야 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선 여전히 일언반구도 없다.

신 씨의 폭로가 그저 불편하기만 한 관리자와 달리, 실무자들 중에선 신 씨가 던진 메시지에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다. 폭로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선 불만이 많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대선 안 된다. 지금 기재부에 필요한 건 고발장보단 '불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용기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산업부 신년인사회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 유관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269억 달러 '사상 최대'

전년대비 17.2% 증가  
주력산업·신산업 집중 투자  
유럽연합 투자액 26.9% ↑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투자의향서 성격)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FDI 신고액은 전년보다 17.2% 늘어난 269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FDI 신고액은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실질적인 투자 유치액인 FDI 도착액은 전년보다 20.9% 증가한 163억9000만 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기계·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의 밸류체인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가 꾸준히 늘었고, 바이오·자율차센서·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와 청정·재생에너지, 해양레저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국가별(신고액 기준)로는 유럽연합(EU)의 투자액이 전년 대비 26.9% 늘어난 89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58억8000만 달러)과 중국(27억4000달러)의 투자액도 각각 24.8%, 238.9% 늘었다. 유형별로는 사업장을 새로 건설하는 형태의 그린필드형 투자액(200억1000만 달러)이 전년보다 27.4% 증가한 반면 인수합병(M&A)형 투자액(68억9000만 달러)은 4.9% 줄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백신선도국에서 백신선진국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 길  
독감 없는 세상을 위해 달려 온 **백신 선구자**에서  
세계인들의 건강을 수호하는 **글로벌 백신 리더**-



- 2009 신종플루, 계절독감백신 국내 최초 생산
- 2011 아시아 최초 3가 독감백신 WHO PQ\* 획득
- 2014 3가 독감백신 누적 생산 1억 도즈 돌파
- 2015 국내사 최초 4가 독감백신 개발
- 2016 세계 2번째 4가 독감백신 WHO PQ\* 획득

백신강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  
**지씨플루**가 이어갑니다



광고심의필 : 2018-1444-103100

\*Pre-Qualification: 사전적격심사

# '태양계 끝'으로 간美 G2 우주전쟁 中 '달 뒤편'에 첫 깃발

1969년 인류가 처음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인 2019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중국이 지구에서의 통상 갈등을 넘어 우주에서도 패권 전쟁의 긴장감을 팽팽히 하고 있다. 우주 산업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중이 모두 2024~2025년께 각기 달 우주정거장과 달 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며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3일(현지시간) 중국중앙(CC)TV 등 현지 언론은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이날 오전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창어 4호는 지난 달 8일 중국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長征) 3호 로켓에 실려 발사돼 이날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있는 폭 186km의 폰 카르만 크레이터에 착륙했다.

창어 4호에 앞서 지난 1일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탐사선 뉴허라이즌스호가 태양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소행성 '울티마 툴레(2014MU69)'에

'달 착륙 50주년' 새역사 릴레이美 탐사선 지구서 65억km 날아 "2033년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접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인류가 탐사선을 보낸 이래 지구에서 가장 멀리까지 날아가 근접비행(flyby)하는 신기록을 썼다. 울티마 툴레는 지구에서 약 65억 km 떨어져 있으며, 사진이 촬영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이 새해 초부터 앞다투어 차세대 '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하면서 경쟁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은 올해 하반기 창어 5호, 내년 창어 6호를 달에 착륙시킬 예정이다. 2025년에는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2030년까지 우주인을 상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민간을 포함해 우주로 40회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다. 35회 발사한 미국보다도 5회가 많고 러시아

연도	미국	중국
2018년 11월	NASA 인사이트, 화성 착륙 성공	
2019년 1월	NASA 뉴허라이즌호,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천체에 도달	창어4호, 인류 최초 달 뒷면 착륙 성공
2020년	미군 우주사령부 창설, NASA, 화성 탐사 로봇 발사 및 탐사. 보잉과 DARPA가 개발한 XS-1 무인 우주선 비행 테스트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더우, 35번째 위성 발사 시스템 완비. 화성 탐사 로봇 발사 및 탐사. 로봇 우주선 발사
2021년	NASA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외계행성 발견 임무 개시	
2022년	달 궤도 우주정거장 '루나 오비탈 플랫폼 게이트웨이' 발사	유인 국제 우주정거장 발사
2023년	51년 만에 '오리온 우주선' 발사해 달 궤도 비행	
2025년	달 무인기지 건설	
2026년	우주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로 얼음이 있는 목성 탐사	
2028년	화성에서 샘플 채취해 지구로 귀환	
2029년	목성 탐사	
2033년	NASA, 화성에 첫 유인 탐사선 발사	

中 창어4호, 달 남극 최초 착륙 "2025년 달 무인기지 건설 계획" G2, 통상갈등 넘어 우주 패권경쟁

(18회), 유럽(8회), 인도(7회), 일본(6회) 등 다른 우주 강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2022년에는 지구 궤도 우주정거장도 가동해 2020년 기능을 멈추는 미국 우주정거장을 대체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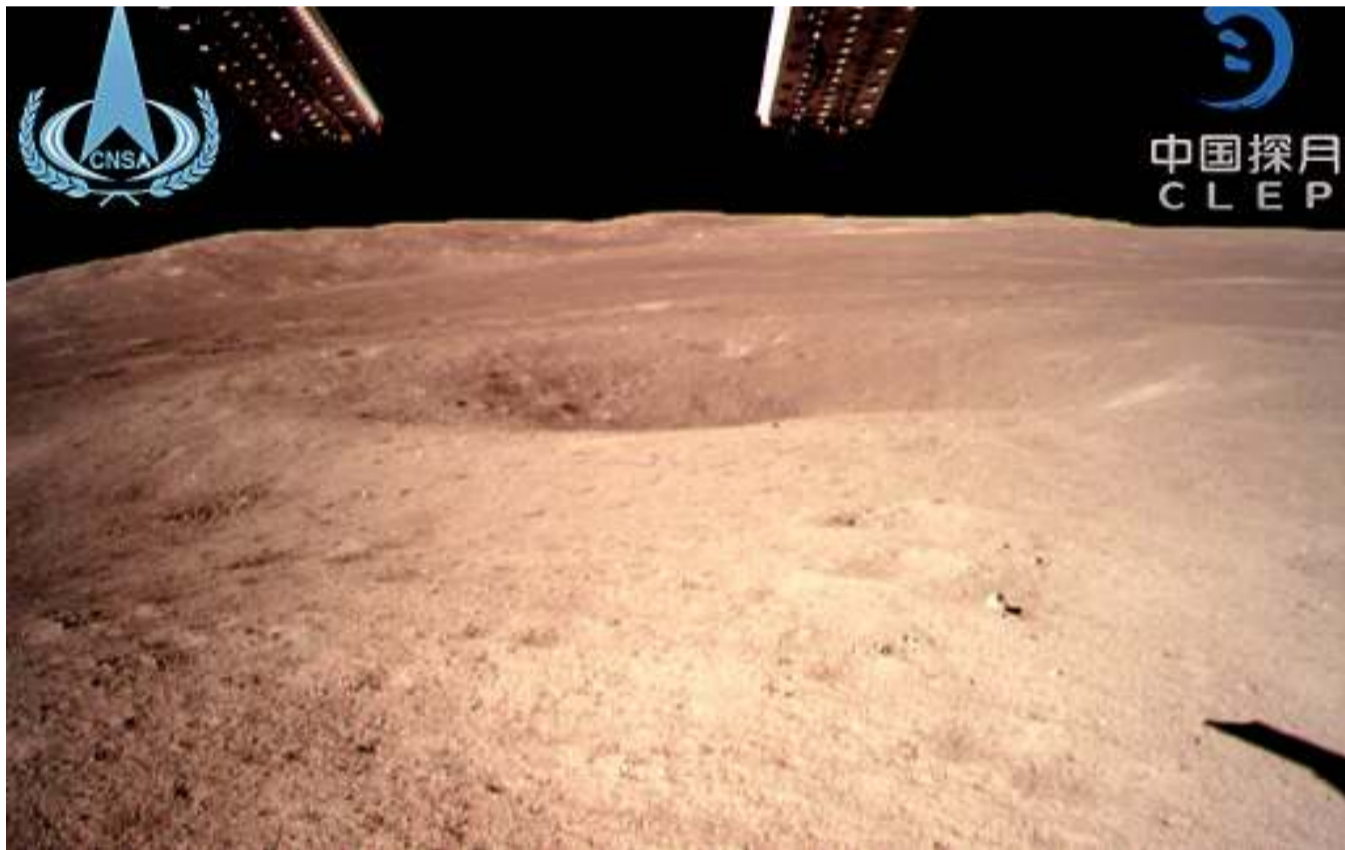
미국 역시 중국의 배에 달하는 예산을 나사에 쏟아부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나사는 2024년까지 국제 컨소시엄으로 인류 최초 달 궤도 우주정거장(딥스페이스게이트웨이·DSG)을 건설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미군 우주사령부 창설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서 서명하기도 했다.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의 군사작전을 더욱 체계화하고 미국의 우주 자산을 방어

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AP통신 등 외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인공위성을 교란·비활성화하거나 파괴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대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우주 탐사에 눈을 돌리고 개발을 가속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개발도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유럽 항공우주회사 에어버스와 유럽우주국(ESA), 블루오리진 등은 더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달에 가는 아이디어를 찾는 경연대회인 '문레이스'를 올 상반기에 시작한다. 지원팀을 모집해 5년간 여러 관문을 거치게 한 후 2024년 최종 우승팀은 에어버스의 지원으로 실제 달 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나 대기업 위주였던 우주 산업에 대학·연구원·중소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다운 기자 gamja@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착륙한 중국 달 탐사선 '창어(嫦娥)4호'가 3일(현지시간) 달 뒷면 사진을 전송했다. 창어4호는 지난달 8일 중국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3호 로켓에 실려 발사돼 이날 오전 10시 26분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 전날 미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선 뉴허라이즌스호가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소행성 '울티마 툴레'에 근접하는 등 주요 2개국(G2)이 새해 벽두부터 우주탐사의 새 이정표를 잇따라 세우고 있다. 사진은 중국 우주개발당국인 국가항천국(CNSA)이 제공했다. 신화연합뉴스

## 개인정보 훑치다 걸린 '중국산 날씨앱'

### 몰래 유료서비스 유도까지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산 무료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몰래 유료 서비스 가입까지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이미 1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인기 앱이어서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 모바일 보안 업체인 업스트림시스템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날씨 앱 '웨더 포캐스트(Weather Forecast)'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 정보와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IMEI)까지 수집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정보들은 웨더 포캐스트를 만든 중국 선전의 TCL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 홀딩스(이하 TCL)로 전송된다. TCL은 알카텔과 블랙베리 브랜드 등의 휴대전화를 만드는 제조사이기도 하다.

미국 모바일 보안 회사인 완데라의 마이클 코빙턴 부회장은 "많은 유명 스마트폰 앱들이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날씨 앱들은 특히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요구하지만 TCL의 앱은 평균적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날씨 정보 제공이 목적인) 평범한 앱이 이용자를 식별 가능한 수준의 고급 정보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한 '웨더 포캐스트(Weather Forecast-World Weather Accurate Radar)' 애플리케이션 캡처 화면.

필요로 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나는 그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스트림시스템은 TCL이 웨더 포캐스트를 통해 이용자 몰래 유료 가상현실(VR)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시도도 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저렴한 알카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상현실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업스트림시스템은 이러한 시도를 차단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총 150만 달러(약 17억 원)를 지불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WSJ는 지난해 11월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진 후 TCL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업데이트하면서 유료 서비스 가입 조치는 멈췄지만 여전히 과도하게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 美 기업들 새해벽두 '실적 쇼크'

### 테슬라·애플 등 부진 경고음... S&P500 순익 증가율 7.8%로 둔화 전망

미국 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잇따라 실적 경고음을 울리면서 뉴욕증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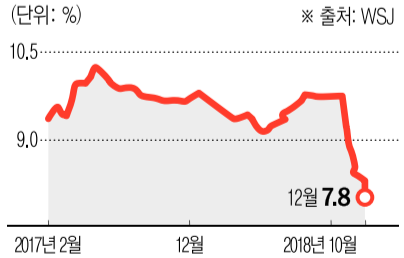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인 애플과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며 각광받아온 테슬라가 이날 잇따라 시장에 불길한 신호를 보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달 마감한 2019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작년 11월 예상치보다 5~10%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테슬라의 작년 4분기 전기차 판매 대수는 9만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세 배 이상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전문가 예상인 9만2000대에는 못 미쳤다.

특히 테슬라를 매저 자동차 기업으로 발돋움시킬 보급형 차종 '모델3' 판매가 6만3150대로, 시장 기대치인 6만5300대를 밑돌면서 시장의 불안 증

### S&P500기업 2019년 주당순이익 증가율 전망치 추이



폭시켰다. 전문가들은 차량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845만 원)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이 새해부터 3750달러로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연말 테슬라 판매량이 더욱 크게 늘어 야 했는데 오히려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는 것은 비상 신호라고 지적했다.

뉴욕증시는 대중주인 애플이 장 마감 후 매출 전망 하향 조정 사실을 공개하고 나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약 8% 급락해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약 7% 급락했다.

경제지표 부진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불안이 커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미국 연방정부 첫 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지속되는 등 온갖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미국 기업들의 실적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미국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달 애널리스트들은 S&P500기업의 올해 순이익이 2018년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인 10.1% 증가에서 낮아진 것이며 지난해 순익 증가율 22%에서 크게 둔화된 것이다. 또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S&P500기업 절반 이상의 순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다우지수는 지난해 5.6%, S&P500지수는 6.2% 각각 하락하는 등 뉴욕증시는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보였다. 그러나 연초부터 실적 경고등이 커지면서 올해 증시는 더욱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투자자들, 美 금리 동결·인하에 베팅

투자자들이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혹은 인하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가능성을 91%로 내다봤다. FF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올해 금리 동결이나 인하 가능성은 작년 11월 초만 해도 10%대에 그쳤었다.

연준은 지난해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나 경기 둔화 전망을 일부 반영, 올해 금리 인상 횟수는 두 차례로 제시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더 나아가 경기 침체를 막고자 연준이 올해 불가피하게 '비둘기 파'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베팅이 적중하려면 올해 미

### 미국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의 연준 금리 동결·인하 가능성 전망 추이



국 경제성장률이 2.3%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연준은 지난달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 성장률 전망을 2.3%로 제시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경제지표도 악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2019년,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첨단기술이 함께 뛰겠습니다

2018년을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SK하이닉스는 첨단기술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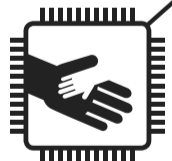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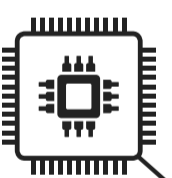


황금돼지야.  
올해 잘 부탁해~~  
나처럼 열심히 뛰려면  
너 아마 다이어트 좀 해야 돼지?

그래 나도 올해엔  
열심히  
뛰어볼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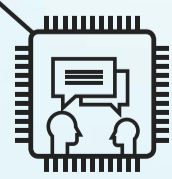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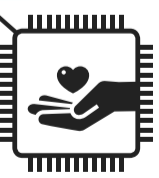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을 만들고  
[DDR5 D램 개발, 96단 4D 낸드 플래시 개발]



모두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M15 준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장애인 일자리 확충]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치매노인을 위한 행복 GPS 지원  
독거노인 안전을 위한 시기기 실버프렌드 무상지원]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할까를  
고민해왔던 2018년  
[SK하이닉스 광고-대한민국 광고대상 통합 대상 수상]

#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 대출심사 때 이전 업력 인정

개인사업 등 업력 1년 이상 법인 은행서 ‘관계형 금융’ 지원 가능 사업 초기 자금 부담 해소 기대

금융감독원이 신용도 낮지만 잠재성 있는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관계형 금융’의 시각지대를 넓혔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가 회사 규모가 커져 법인으로 바뀌면 기존 업력이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새롭게 신용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 설립 이전 업력도 신용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 초기 은행권에서의 자금 지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관계형 금융 가이드라인’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계형 금

기존금융과 관계형금융 비교 ※ 출처: 금융감독원

	기존금융	관계형금융
대상기업	신용이 우수하거나 담보가 충분한 기업	신용도·담보가 부족하지만 대표자의 도덕성,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기업
지원내용	1년 이내 단기대출 위주	3년 이상 장기대출(자본투자 가능)
대출심사방법	채무제표 및 신용평가결과만 활용	은행 자체 대출심사결과(재무, 비재무 경영정보) 활용
기업과 관계	은행은 기업의 채권자가 됨	은행은 채권자 또는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
사업성과	은행은 기업의 사업성과를 미공유	은행은 기업의 사업성과를 공유(배당, 자본이득)

융은 은행이 담보나 보증 없이 기업의 잠재력을 보고 장기 대출과 지분 투자, 컨설팅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은행은 기업과 관계형 금융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계약적인 수치뿐만 아

니라 대표의 도덕성과 경영의지, 업계 평판, 사업 전망, 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돈을 빌려준다. 3년 이상 장기 대출이나 투자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은행은

기업의 주요 정보를 받아 수시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을 바꾸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도록 2014년 이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다.

다만 기업은 법인 설립 뒤 은행과 1년 이상 관계를 맺어야 관계형 금융 MOU를 맺을 수 있다. 서로 간 신뢰관계를 다지는 시간이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으로 전환한 곳이다. 사실상 6년 동안 사업을 했어도 법인으로 바뀌면 처음부터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신용평가 모델이 각각 다른 탓이다. 규모를 키우고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초기 1년 동안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형 금융이 법인 중심이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시각 지대가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개인사업

자 업력까지 포함해서 1년 이상이면 MOU를 맺을 수 있도록 바꿨다”고 했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이 관계형 금융의 대표적인 예다. 지역에 있는 영세 기업들이 지역금융 회사를 주거래 은행으로 삼아 자금을 융통한다.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으면 주거래은행이 기업을 믿고 수년 동안 돈을 빌려준다. 또 기업과의 장기거래를 통해 파악된 경영정보를 기초로 기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등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폭넓게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은 독일처럼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관계형 금융 잔액은 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말(5조9000억 원)보다 1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관계형 금융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은행의 활성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새히 기자 shys0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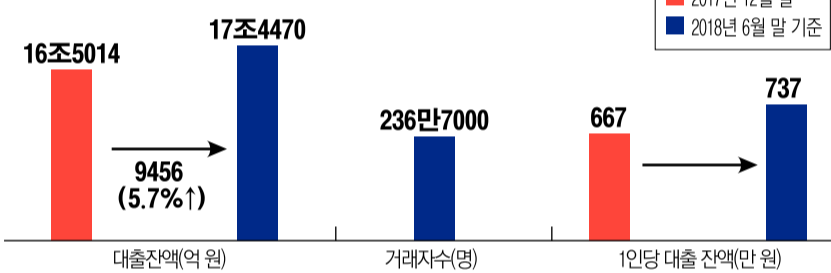
## ‘대부업 대출’ 1인당 737만원 빌렸다

2018 상반기 대부업 실태 경기 불황에 잔액 17兆 돌파 이용자 11만명 줄어든 237만명

지난해 상반기 1인당 대부업 대출 잔액이 평균 737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을 받은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 불황으로 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총대출 잔액은 17조4470억 원을 기록해 2017년 말보다 9456억 원(5.7%) 증가했다. 대

2018년 상반기 대부업 현황



부업 이용자 수는 236만7000명으로 같은 기간 10만6000명(4.3%) 감소했다. 이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거래자 수가 약 9만 명 줄어든 영향이 컸다.

거래자 수는 줄었지만 1인당 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73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586만 원과 2017

년 667만 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대출 유형별 대출 잔액은 신용대출이 전체의 73%인 12조7334억 원을 차지했다. 나머지 담보대출은 4조71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와 리스크 관리로 인해 담보대출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2017년 말 대비 신용대출은 1308억 원(1%) 증가에 그쳤지

만, 담보대출은 8148억 원(20.9%) 증가했다. 담보대출 비중은 2016년 말 16.5%에서 매년 5% 이상 증가했다.

반면,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해 6월 기준 20.6%로 2017년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신용대출 금리는 1.4%p 하락했지만 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체율은 자산 100억 원 이상 업체 기준 7%로 2017년 말보다 1.2%p 증가했다. 하반기 연체율이 상반기 연체율보다 낮은 것을 감안해 2017년 6월 연체율 5.6%와 비교하더라도 연체율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과 시중금리 동향을 감시하면서 저신용 이용자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해 채권 매입 추심업자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이용우·윤호영 카뱅 대표 연임

카카오뱅크가 이용우·윤호영 공동대표 체제를 지속한다.

카카오뱅크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이용우·윤호영 현 공동대표 이사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2019년 1월 3일부터 2년이다.

앞서 카카오뱅크 임원추천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두 공동대표를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외이사를 구성하고 두 대표 연임을 확정했다. 두 공동대표 이사는 “앞으로도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동원증권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을, 윤 공동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부부장, 카카오 모바일뱅크 데스크포스트 팀(TFT) 부사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www.douzo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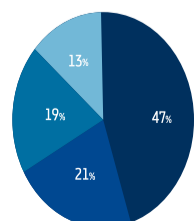
## 올 A+ 회계프로그램

###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 Anytime 언제나
- Anywhere 어디서나
- Any Device 어떤 기기든
-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임 고객사 중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권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DOUZONE

####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력 발생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잔무 스트레스 해소, 기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휴산, 육아 고민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 목표 늘린 조선 3사 뼈 깎는 원가 혁신 선언

## 공급 과잉 악조건 속 '세계 최고' 부활 다짐

국내 조선업계가 수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올해는 반드시 세계 최고 조선 해양 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조선업체들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오히려 수주 목표를 늘려 잡고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매출 8조5815억 원, 수주 117억 달러'를 올해 목표로 세웠다. 이는 조선 80억 달러 뿐 아니라 해양(19억 달러), 플랜트(1억 7000만 달러) 등을 포함한 규모다. 여기에 현대삼호중공업(43억5000만 달러), 현대미포조선(35억3000만 달러)을 포함하면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65억 달러보다 18.8% 많은 액수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아직 목표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지난해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영석·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는 '2019년 신년사'에서 "반드시 흑자 전환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담아 2019년의 슬로건을 '다시 일어나 세계 제일 조선 해양'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사는 지난해 초유의 위기 상황에도 확고한 목표로 안전강화 정책을 시행, 재해율을 30% 가까이 낮췄다"면서 "지난해 말문을 연 '통합안전교육센터'의 교육 등 전방위



공격 경영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울산 해양공장 모습.

연합뉴스

### 현대중 "선박 가격·발주 제한적...최적화 설계로 생산성 향상"

### 대우조선 "2015년 악몽 거울 삼아 내부통제 강화...실패 최소화"

### 삼성중 "원가 경쟁력 확보 총력...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적 노력을 통해 실천과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또 "공급 과잉이 여전한 상태에서 선박 발주는 제한적이어서 선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방 등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 상승세와 함께 고정비 부담이 늘고 있어 원가 절감이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 최적화 설계와 공법·공정 개선, 전략적 기자재 구매 등을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공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자재비를 절감하겠다"며 "많은 LNG선을 건조함에 따른 공정 관리 강화와 함께 셔플링커 등 새로운 선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LG '8K' 올레드 TV 나온다 CES 2019서 전략모델 공개

LG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9'에서 올레드(OLED) TV에 최고의 해상도를 적용한 88인치 8K 올레드 TV(모델명: 88Z9) 등 전략제품을 대거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8K 올레드 TV는 3300만 개에 달하는 화소 하나하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LG전자는 75인치 8K 슈퍼 울트라HD TV(75SM99)도 처음 선보인다. LG전자는 8K TV 제품을 앞세워 초고화질 TV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알파9 2세대(α9 Gen 2)'도 장착돼 최적의 화질과 음질을 구현한다.

이 프로세서는 8K TV뿐만 아니라 4K 올레드 TV W9, E9, C9시리즈에도 장착된다. LG전자는 지난해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아마존의 음성인식 비서 '알렉사(Alexa)'도 지원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통합' 현대트랜시스 출범

지난해 합병을 의결한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 계열사 현대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이 통합 법인명을 '현대트랜시스'로 확정했다. 새 법인은 변속기와 구동계를 비롯, 고급차 시트 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으로 거듭난다. 현재 7조 원 수준인 연매출 역시 2022년에는 12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3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전날 주주총회를 열어 통합법인의 사명을 확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10월 현대다이모스와 현대파워텍은 이사회를 통해 양사 간 합병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사명은 △변형(Transform) △초월(Transcend) △구동시스템(Motor System) 등 세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현대트랜시스는 △자동변속기 △수동변속기 △듀얼클러치변속기(DCT) △무단변속기 등 변속기 전 라인업을 갖춘 세계 유일의 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삼성중 '최대' 해상유전 설비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 성공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에지나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가 해상 시운전을 마치고 첫 원유 생산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8월 로컬 콘텐츠(현지 생산 규정)에 따라 나이지리아 현지 생산 거점에서 에지나 FPSO의 모듈 제작 및 탑재를 마치고 이를 출항시킨 후 4개월 만에 해상 시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에지나 FPSO는 나이지리아 원유 생산량의 10% 수준인 하루 최대 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예정이다.

에지나 FPSO는 삼성중공업이 2013년 나이지리아에서 수주한 해양 프로젝트로 삼성중공업이 설계와 구매, 제작, 운송, 시운전 등을 총괄하는 턴키 방식이다. 계약 금액은 약 34억 달러로 FPSO 사상 최대 수주 금액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현대차그룹 임원진 슬림화...200여 명 퇴출 통보

지난해 말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신규 임원을 대거 확충한 현대차그룹이 사실상 임원 수 줄이기를 단행했다. 140여 명이 신규 임원 반열에 올라섰지만 퇴출 임원은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만큼 임원진의 슬림화를 통해 내실 다지기와 수익성 회복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3일 현대차그룹은 연구개발본부의 K 부사장과 PM총괄 L 부사장 등을 비롯해 각 사업부 상무 및 이사급 임원에 대해 해임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이미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의 임원 구조조정은 지난달 초 시작했다. 설영홍·양용철·권문식 부회장 등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 일부가 고문으로 물러나면서 임원 규모 감축이 본격

## 지난달 사장단 일부 고문으로 임원 140명 최다 승진 동시에 '비상 경영' 본격 추진

화됐다. 정기 임원인사가 단행될 때에도 희비는 엇갈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19일 현대기아차 183명, 계열사 164명 등 모두 347명 규모의 임원 승진 인사를 했다. 직급별로는 △부사장 8명 △전무 25명 △상무 64명 △이사 106명 △이사대우 141명 △연구위원 3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신규 임원인 이사대우 승진자는 2017년(115명)보다 22.6% 늘어난 144명(연구위원 3명 포함)에 달했다. 전체 승진자 가운데 이사대우 직급 비중은

40.6%로 2011년 44.0% 이래 최대 수준이었다. 반면 상무 이상 승진자는 전년 대비 5명이 줄었다. 그룹 측은 이에 대해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와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가 인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 연구위원을 포함한 신규 임원 승진이 150명에 육박했지만 210명에 달하는 임원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임원진 슬림화가 단행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계열사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카드에서도 지난해 말 부부장급 상무와 실장급 이사 등 총 6명의 임원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다. 지난해 3분기 원·달러 환율은 물론 주요 신흥국 통화까지 하락 탓에 어닝쇼크를 겪

김준형 기자 junior@

## 아우디 올라탄 삼성 차량용 반도체

### '엑시노스 오토 V9' 공급

삼성전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 아우디에 2021년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정보+오락) 시스템(IVI)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Exynos Auto) V9'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차량용 반도체 브랜드인 '엑시노스 오토'를 공개한 이후 처음 선보이는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고성능·저전력 프로세서다.

'엑시노스 오토 V9'는 최대 2.1GHz속도로 동작하는 옥타코어(Octa Core)가 디스플레이 장치 6개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 카메라는 최대 12대까지 지원한다. '엑시노스 오토 V9'는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신경망 처리장치도 장착해 운전자 음성과 얼굴 그리고 동작 인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운전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갖췄다. 특히 이 제품에는 차량용 시스템의 안전기준인 '에이실-BI'를 지원하는 영역이 별도로 장착돼 차량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시스템 오작동을 방지하는 등 안정성도 대폭 강화됐다.

송영탁 기자 syr@

## 한화, 자주포·장갑차 생산 법인 통합

### 통합 한화디펜스 등치 키워 "2025년 글로벌 방산 20위"

한화그룹 방산계열사인 한화지상방산과 한화디펜스가 통합해 '한화디펜스'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화지상방산과 한화디펜스는 3일 주주총회를 열어 모회사 한화지상방산이 자회사 한화디펜스를 흡수하고, 합병 후 존속법인 상호를 한화디펜스로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통합 법인인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를 주력으로 하는 한화지상방산과 K21 장갑차, 비호복합 등 기동·발사체계가 전문인 한화디펜스가 합병되며 화력, 기동, 대공,

무인체계 분야에 특화된 종합 방산업체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 또 이번 통합을 통해 자산, 매출 규모가 더욱 커짐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방산위가 개선, 비용 감소 등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화디펜스는 '2025년 매출 4조 원, 글로벌 방산기업 순위 20위 진입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앞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에 적극 참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핵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으로 한화그룹 방산계열사는 (주)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4개사로 재편됐다.

변효선 기자 hsbyun@

# “허리 약한 한국 경제… 스케일업 지원에 집중할 때”

신년 특별인터뷰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당장 올해 중소기업 일부가 무너질 것이다. 작년부터 우리 회사 좀 팔아 달라고 말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한꺼번에 적용되다 보니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여건이 되고 있다.”

3일 경기 판교 이노비즈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성명기(66) 이노비즈협회장은 머뭇거리며 답하는 법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성 회장이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가리는 기준은 단순했다. 그 잣대는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였다.

◇최저임금 동결하고, 탄력적 근로시간 제 기간 1년으로 늘려야 = 성 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10.9%로 8350 원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새로운 결정구조 아래에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성 회장은 그마저도 적절한 대책이 못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해 성장하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직원을 위한 노동 정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며 “지금과 같은 인상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었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해서도 성 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집중 생산하는 기간이나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집중 연구 기간 등이 부족해 경쟁력이 도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성 회장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성 회장의 우려는 노동정책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협력이익공유제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2012년 시행된 성과공유제를 보완한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원가 절감뿐 아니라 기술 개발, 품질 혁신 등 다양한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이익을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환경 고려 안 한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 일자리 잃는 사람 늘어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 불러올 것

협력이익공유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회장은 “협력업체들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협력이익공유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기업들이 협력이익공유제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중국 업체에 일감을 더 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감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히려 대기업들은 더 이익을 챙기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에 편중된 정부 지원은 문제 = 성 회장이 꼽은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허리 부족’이다. 그는 경제를 축구에 비유하며 미드필더, 허리 역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무리 소수의 공격수가 뛰어나도 미드필더가 받쳐주지 않으면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큰데 중소기업의 역활은 이에 못 미친다고 성 회장은 지적했다. 성 회장에 따르면 그 원인은 스타트업에 편중된 정부 지원과 무관치 않다. 최근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해서 늘었다. 단적으로 중기부의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2017년 1조6500억 원에서 작년 1조 8660억 원으로 확대됐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노비즈협회 사무실에서 이노비즈협회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이노비즈협회

그러나 스케일업(Scale-Up) 기업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성 회장의 분석이다. 그는 “이노비즈 기업은 지난 8년간 총 26만70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총 매출액은 271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637조 원 대비 약 16.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100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스타트업보다 이노비즈 기업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면 스케일업 기업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노비즈기업은 1만8111개사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그중 73.7%인 1만 3363개사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부터 8년간 이노비즈기업은 총 26만7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에서도 중소제조업과 비교해 3배 이상의 경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작년 한 해 일자리 창출 성과에 관해 성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여파로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0년부터 재작년

정부 지원, 스타트업에 편중 매년 3만개 넘는 일자리 만든 이노비즈기업 지원엔 소홀 혁신기술 관련 규제개혁 절실

까지는 매년 3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작년 한 해는 이에 못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이노비즈협회의 가장 큰 목표는 스마트공장 플랫폼 구축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작년 초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해 △일자리 창출 △글로벌 진출 △기술 혁신 3가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작년 11월 자체적으로 ‘이노비즈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결성해 현재 15개사가 공급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수요기업을 발굴, 선정해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의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성 회장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

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3만 개 구축 등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동시에 성 회장은 정부를 향해 혁신 성장의 발판이 될 규제 개혁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핀테크, 전자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다 뒤쳐지고 있다”며 “공산주의 특유의 밀어붙이기로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순가락 놓을 자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규제들이 많아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얼마 전 베트남 출장을 갔을 때 동남아시아판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 서비스를 정말 유용하게 썼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다 하는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술의 물결은 되돌릴 수 없다”며 “언젠가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정부의 역할은 답이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이용료 내리고 보장기간 늘리고… KT ‘폰 안심케어4’ KT가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트렌드에 맞춰 이용료는 줄이고 보장기간을 늘린 단말보험을 선보인다. ‘폰 안심케어4’는 기존 상품에 비해 월 이용료는 100~1000원 낮아지고 보장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늘렸다. 사진은 KT 홍보모델들이 ‘폰 안심케어4’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KT

## 현대리바트, 초등학생 가구 ‘뉴 루디 시리즈’ 출시

다양한 모듈·색상 조합 가능 9일까지 출시기념 10% 할인

현대리바트가 3월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는 학부모, 2012년생 아동을 겨냥한 초등학생용 가구 신제품을 선보인다.

3일 현대리바트는 자녀 방의 가구 교체 수요가 높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초등학생용 가구 ‘뉴(New) 루디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총 48만 4550명이다. 최근 5년(2014~2018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이에 가구 업계에서는 아동 가구 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 루디 시리즈’는 다양한 모듈과 색상 조합을 아이의 특성에 맞는 방을 꾸밀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전 제품에 국내 최초로 독일 샤프테코의 LPM 표면재 데코레이 리얼(decolay REAL)을 사용해 생활 균침이 잘 생기지 않고, 무늬목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전통 높이 조절 책상’은 독일 오킨(OKIN)의 모션 데스크 하드웨어를 사용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책상 상판 오른쪽 아래에 있는 LC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720~1170mm까지 1mm 간격으로

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자주 사용하는 높이를 3단계로 저장해 손쉽게 높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장애물 인식 센서도 있어 높이를 조절하는 도중, 아이가 책상 밑에 들어가는 경우 자동으로 동작을 멈추는 기능도 있다.

기존 ‘루디’ 시리즈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색상과 구성 요소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3가지 색상(핑크·블루·아이보리)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뉴 루디 시리즈’는 화이트·오크·오크 2가지 메인 색상과 ‘네이비&옐로’, ‘네이비&그린’, ‘핑크&그레이’, ‘아이보리&그레이’ 4가지 포인트 색상 등 총 8가지 색상 타임을 선택할 수 있다.

‘뉴 루디 시리즈’는 전국 리바트스타일 샵 직영점 및 대리점에서 판매된다. 9일까지는 ‘뉴 루디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10% 할인 판매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함께라서  
일어설 수 있었고

함께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함께라서  
꿈을 겨눌 수 있었다

불가능의 반대말  
그것은  
함께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행복한 금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휠체어펜싱 김선미 선수

부담되는 생활용품값  
이마트가 도와드려요

# 국민 가격

이마트는 2019년 신가격정책인 '국민가격'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국민가격은 '이마트가 국민의 가계살림에 힘이 되도록 생활필수품 가격을 내리는 프로젝트'로,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할인을 주력으로 내세운다.

이마트의 이 같은 신가격정책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전날 신년사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만의 스마트한 초저가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정 부회장은 "스마트 컨슈머는 '가치 소비'를 바탕으로 가장 저렴한 시점을 놓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이 생활화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점포 경쟁력을 높여 이마트 점포를 찾는 고객을 늘리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특히 많은 고객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선·가공·생활용품 중 '장바구니 핵심 상품'만을 엄선해 행사 상품으로 채택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통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대규모 물량

## 장바구니 핵심상품 엄선해 1·3주차에 40~50% 할인

사전 계약을 통해 파격적인 할인을 선보이는 국민가격을 준비했다. 이마트는 매일 1·3주차에 농·수·축산 식품 각 1개씩 총 3품목을 선정해 행사 기간 1주일 동안 약 40~50% 할인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마트는 올해 첫 국민가격 상품으로 행사 카드 결제 시 이마트 사상 최초 전복(소)을 개당 990원에 판매한다. 전복 중/대 사이즈는 팩 상품으로 제작해 1팩(740g·750g)당 2만3800원에 판매한다.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만큼 한정 물량을 준비했고 조기 품절이 예상돼 전복(소)의 경우 1인당 10마리까지 구매를 제한해 판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삼겹살·목살'은 행사 카드로 구매 시 각 40% 할인한 100g당 990원에 선보인다.

신선식품 외에도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은 사전 기획을 통해 매일 10대 상품을 선정, 한 달 내내 특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국민가격 상품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대표 상품들로 구성했다"며 "2019년을 맞아 국민가격 외에도 고객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식품업계, 1兆 댕댕이 먹거리 시장 각축전

'펫푸드'가 식품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선두주자인 해외 기업과 신사업에 도전하는 국내 식품 대기업 간의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8890억 원으로, 2018년에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그룹이 발표한 '2018 반려동물보고서'에서도 펫푸드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9%로 반려동물 산업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반려동물에게 지출하는 비용 중 '사료비', '간식비' 등 식대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내 펫푸드 시장은 외국계 기업들이 중상위권을 장악, 80%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20% 내외에 그쳤다. 이처럼 국내 시장을 외국 브랜드가 선점한 가운데 국내 식품 업체들은 일반 식품 분야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한 '프리미엄 펫푸드'로 틈새를 노리고 있다.

참치를 기반으로 반려묘 습식 사료를 내놓은 동원F&B의 '뉴트리플랜'은 최근 참치와 크릴새우가 주원료인 반려견 사료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정관장'으로 유명한 KGC인삼공사는 반려동물 건강식 브랜드 '지니펫'을 론

펫푸드 연평균 19% 성장  
국내 시장 외국계 비중 80%

해외업체들 기술력에 대항  
토종기업 후발 진출 줄이어

홍삼 성분 건강식·펫밀크 등  
'프리미엄 펫푸드'로 틈새 공략

칭, 홍삼 성분을 함유한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유음료 전문 기업 빙그레에서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펫밀크, '에버그로'를 출시했다. 서울우유는 2017년 국내 최초로 국산 원유로 만든 반려동물 전용 우유 '아이펫밀크'를 시장에 내놨다.

국내 시장에서 외국계 선두 기업으로는 로얄캐닌코리아, 한국마즈, 네슬레 퓨리나 등이 있다. 이들 해외 업체는 오랜 기간 쌓아온 펫푸드 제조 기술력과 연구 경험을 앞세워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다.

국내 펫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글로벌 펫푸드 브랜드 '로얄캐닌'은 820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약 10만㎡의 전북 김제에 아시아태평양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이곳에서 개와 고양이 사료를 연간 9만 톤가량 생산할 계획이다. 로얄캐닌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7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 14개 공장을 두고 있다.

네슬레 퓨리나는 최근 세계 최초로 반려동물 전문 연구소인 '퓨리나 인스티튜트(Purina Institute)'를 설립해 다양한 제품군 확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출시한 프로플랜 '브라이트 마인드'는 노령견 인지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반려동물 데일리 덴탈케어 브랜드 '덴탈라이프'를 론칭, 반려동물의 치석 및 플라크 제거에 효과 있는 덴탈 간식을 선보였다. 톱나바퀴 모양으로 입안 뒤쪽까지 굴러 들어가 잘 닿지 않는 반려동물 잇몸 끝까지 구석구석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탁월한 치석 제거 효과로 미국 수의 구강위원회 VOHC 인증마크를 받았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진도모피 최대 70% 대박 세일 현대백화점은 6일까지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 '진도모피그룹 패밀리 세일'을 열고 '진도모피', '엘페', '골레베' 브랜드의 인기 이월상품을 40~70% 할인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대표 상품으로는 '진도모피 미크 하프코트(150만 원)', '엘페 아디 퍼베스트(50만 원)', '골레베 미크 휘데일 재킷(169만 원)', '골레베 미크 머플러(13만 원)' 등이 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아름다움을 지켜라” 화장품 신제품 러시

설화수 '진설 라인' 업그레이드  
더샘 '에어리 코튼 라인' 등 출시

화장품 업계가 새해 벽두부터 신제품을 출시하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설화수, 더샘, 미샤 등 화장품 브랜드는 기존 라인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신제품을 선보였다.

설화수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라인인 '진설 라인'을 업그레이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진설 라인은 울진 지역의 50년 이상 된 금강송 잎을 사용해 종전 대비 DAA(피부노화 케어 성분) 함량을 2배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진설 라인은 '진설수', '진설액', '진설에센스', '진설크림'과 '진설마스크' 5종으로 구성됐고, 모든 제품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다.

더샘은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돕는 '샘물 에어리 코튼 라인'을 내놨다. 여드름 자국, 트러블, 홍조 등 각종 피부 고민을 숨겨주는 메이크업 라인으로, 피부 톤을 화사하게 바로잡아주는 메이크업 베이스와 피부 결점을 덮어주는 파운데이션으로 구성됐다.

미샤는 4세대 보랏빛 앰플 유효 성분을 압축시킨 '프로바이오 앰플 압축 크림'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미샤가 개발한 '코어 프레스(CORE PRESS)' 공법으로 압축한 유효 성분을 탄성 리포솜을 이용해 피부 사이 깊숙이 흡수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에 에너지를 주는 10가지 유산균 발효 성분, 외부 자극을 진정시켜주는 보랏빛 과일과 채소 성분도 들어 있다.

브이티 코스메틱도 새해를 맞아 마스크 팩 제품을 새롭게 내놨다. 브이티 코스메틱은 겨울철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를 달랠 수 있는 피부진정 마스크 팩 'VT 프로사카 마스크 팩'을 출시했다.

헤어 케어 브랜드 아윤채도 손상된 모발에 보습과 영양을 주는 '컴플리트 리뉴 에센스 오일'과 '컴플리트 리뉴 에센스 미스트'를 신제품으로 내놨다.

박미선 기자 only@

## 면세업계, 새해 이벤트 팡팡

현대 '황금돼지 프로모션'·신라 100% 당첨복권 증정 등

면세업계가 새해를 맞아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황금돼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1달러 이상 구매하는 내·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황금돼지'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은 150달러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에게 'USB 미니 가습기'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인터넷면세점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6일까지 람콤·키엘·바비브라운 등 150여 개 브랜드에서는 구매 금액의 최대 32%를 적립해주고, 브랜드 별로 영화예매권, 백화점 상품권 등의 구매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구매 금액의 최대 15%를 모바일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현타데이 프로모션'도 10일과 17일에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황금돼지 띠를 기념하기 위한 경품행사 및 모바일 적립금 혜택 등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모션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8일부터 3월 4일까지 서울점, 인천공항점, 김포공항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 후 영수증 내 응모권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골든듀 블레싱듀 다이어몬드 0.5캐럿 반지(1명)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펜(20명)을 증정한다.

또 9일 영업을 시작하는 김포공항점에서는 31일까지 1달러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해 김포공항점 안내데스크에 방문하면 황금열쇠 5돈, 서울신라호텔 '더 파크뷰' 2인 식사권,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10만 원, 텀블러, 여행용 파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100% 당첨 복권을 증정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다음 달 21일까지 최대 28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와 AP사진전 관



현대백화점면세점 신년 프로모션.

람권, 멤버십 업그레이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신년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과 강남점, 인천공항점에서 KB국민카드, BC카드(QR 결제 포함), NH농협카드 등 제휴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8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명동점에서는 300·600·1000·1500·2000 달러 이상 구매 시 각각 7만·11만·17만·20만·28만 원의 선불카드를 제공한다. 명동점과 강남점에서 당일 구매금액이 300달러 이상인 고객에게는 AP사진전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의 관람권을 준다.

남주현 기자 jooh@

# “신약 개발·글로벌 도약”...바이오 기업들 새해 각오

## 제약업계는 지금

제약업계가 연구·개발(R&D) 열매 수확을 목표로 신년 벽두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다양한 신약 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강국 진입을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월 제약업계에 따르면 주요 제약사들은 일제히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올해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지난해 1조40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회사	프로젝트	적응증	현황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비소세포폐암	상반기 미국 임상 3상 진입
	롤론티스	호중구감소증	4분기 미국 FDA 허가 예상
한미약품	포지오티닙	폐암	미국 2상 진행
	에페글레타이드	당뇨·비만	미국 3상 진행
	오락솔	유방암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대웅제약	나보타	보툴리눔 독신	1분기 FDA 허가 예상
	HL036	안구건조증	연내 미국 임상 3상 진입 계획
GC녹십자	MG-SN	혈액제제	FDA 품목허가 진행(지연)
	MG1120A	대상포진백신	하반기 미국 임상 1상 중간결과 발표



## 건강한 픽템

### 보령제약 ‘뉴브이로토EX’

### 미세먼지에 지친 눈 영양 채우고 피로 썩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겨울철은 대기순환이 불안정하고 강수량도 적어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지는 계절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호흡기 건강뿐 아니라 눈 건강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세먼지 성분 중에는 규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질소 및 아황산가스 같은 대기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 알레르기성 각결막염, 안구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동물실험 연구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된 그룹의 안구표면 손상이 더 심했고, 반복 노출 시 안구표면 보호물질(뮤신)의 분비량이 감소했다. 더불어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이 눈은 물론 목·피부·폐에서도 증가해 눈에 염증을 유발하고

### 판테놀·비타민B 영양 성분에 항히스타민 함유 안질환 억제

손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보령제약의 ‘뉴브이로토 EX’는 판테놀, 비타민B, L-아스파라긴산칼륨 성분이 배합돼 눈의 세포호흡을 활성화하고 피로한 눈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 눈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준다. 또한, 누액 성분인 콘드로이틴이 각막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항히스타민제를 함유하고 있어 눈의 가려움증, 염증을 억제해 각종 안 질환에 효과적이다.

눈의 피로는 초점 조절근에 피로가 쌓였을 때 느끼게 되는데 뉴브이로토 EX에는 초점조절근의 피로 회복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점안하고 나면 피로감뿐 아니라 초점 조절 능력의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

점안 시 시원한 청량감이 있어 눈이 피로할 때 시원한 기분을 바로 느낄 수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뉴브이로토 EX는 눈의 피로, 충혈, 가려움증 등 다양한 질환을 효과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비타민, 아미노산 등의 영양을 눈에 직접 공급해 피로를 해소해주는 제품”이라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눈을 비비지 말고 위생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점안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유한양행 ‘그레이트&글로벌’ ‘레이저티닙’ 상반기 임상 3상 내실경영 다지는 한미약품 ‘롤론티스·포지오티닙’ 상용화

패거를 올린 유한양행은 경영지표를 ‘그레이트&글로벌(Great&Global)’로 정하고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개인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유한양행이 안선에 기술수출한 비소세포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은 상반기 중 미국 임상 3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레이저티닙은 전 세계 3조 원 규모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대항마로 꼽힌다.

새해 가장 주목받는 제약사로 꼽히는 한미약품은 내실경영을 통한 ‘글로벌 한미’ 비전 실현을 추진한다.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글로벌 한미의 입구에 다

가서 있는 지금, 그동안 성취한 혁신 성과들을 다시 돌아보며 내실 경영으로 완성해 나가자”고 독려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 과제들의 성과 기반 연구를 주문했다.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는 4분기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기대된다. 아울러 표적항암제 ‘포지오티닙’, 비만·당뇨신약 ‘에페글레타이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대웅제약은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해 글로벌 헬스케어그룹의 초석을 다진다. 올해는 ‘글로벌 2020 비전’ 실현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의 가속화 △오픈 컬래보레이션을 통한 사업혁신 등을 구체적 경영 방침으로 제시했다.

자체 개발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독신 중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1분기 FDA 허가를 앞두고 있으며, 상반기 중 주요 선진국 시장에 시판할 예정이다. 이종표적자가면역 치료제, APA 항결핵제, 안구건조증치료제 등 주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의 연구

### 대웅 ‘글로벌 2020’ 분수령 자체개발 ‘나보타’ 美진출 임박 GC녹십자는 혈액제제·백신 JW중외, 글로벌 협력 추진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누적 해외 수출액 2억 달러를 돌파한 GC녹십자는 주력 사업인 혈액제제와 백신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글로벌 GC의 미래를 그려가자”고 강조했다.

GC녹십자의 혈액제제 ‘IVIG-SN’은 FDA가 품목허가 승인을 위해 제조공정 자료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연내 최종 시판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유전자재조합 방식 차세대 대상포진백신 ‘MG1120A’는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수출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올해 경영 방침을 ‘스마

트 JW; 경쟁우위 성과’로 정했다. 지난해 덴마크 제약사 레오파마에 혁신적인 아토피부염 치료제 ‘JW1601’을 4500억 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JW중외제약은 올해도 다양한 혁신 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Wnt 표적항암제 ‘CWP291’, Wnt 표적탈모치료제 ‘CWL08061’ 임상 결과와 향후 개발 전략을 공개한다.

보령제약은 인재 육성과 사업영역 확장을 필두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보령제약은 표적항암제인 동시에 면역항암신약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BR2002’ 프로젝트의 한국-미국 동시 임상 1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 바이센셀에서 진행 중인 림프종 면역세포치료제 임상 2상과 두 번째 파이프라인인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임상 진입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euna@



## 유럽 접수한 셀트리온 ‘트룩시마’ 리룩시맙 시장 점유율 35% 달성

### 판매 1년반 만에 빠른 성장세 안전성 입증...美진출 청신호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판매 중인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성분명 리룩시맙)가 유럽에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트룩시마는 지난해 3분기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특히 영국 66%, 프랑스 42%, 이탈리아 31% 등 유럽 리룩시맙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5개국에서 3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유럽 판매 7년 차에 접어들어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가 출시 2년 차에 11%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트룩시마의 처방 확대 속도는 3~4배가량 더 빠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트룩시마의 시장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미국 시장 공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 내 실제 처방 데이터가 지속해서 쌓이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처방 근거 데이터와 미국 행정부의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 가격 경쟁력 강점 등을 앞세워 미국 의사들의 처방 확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의약품 가운데 최초로 연간 누적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사진제공 셀트리온헬스케어

처방액 1조 원을 돌파한 렘시마는 지난해 3분기 유럽에서 5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에 허가가 접수된 ‘렘시마SC’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판매 시너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분기 유럽 시장에 선보인 ‘허주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도 시장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주마는 네덜란드 36%, 오스트리아 22%, 독일 7% 등 출시 3개월 만에 유럽에서 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주요 바이오시밀러 3개 제품 모두 의료 선진국 유럽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유럽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미국에서도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미래형 병원’으로 변화하는 의료계

### ‘의료 혁신·환자안전’ 목표로 빅데이터·AI 등 임상에 활용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이 올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올해 주요 경영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임상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3월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중심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외래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3월 새로 준공되는 ‘인술제중(仁術濟衆)대한외래’를 통해 외래진료 프로세스를 새롭게 디자인한다. 분당서울대병원도 미래로 강화에 동참한다.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은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퍼스트무버’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산병원 역시 3월 초 차세대 병원정보

시스템 ‘아미스(AMIS) 3.0’ 구축사업을 재개한다. 아산병원과 LG CNS가 3년간 4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이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 병원을 설립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사진)은 올해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임상에 적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용식 서울성모병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의료기관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며 “올해는 인공지능의 중심에 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는 흠어져 있는 신촌 지역 내 대학들과 병원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신촌 지역 ‘의료복합 클러스터 마스터 플랜’ 실행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고대의료원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연구 개발(안암), 질병중심 전문센터 구축(구로), 지역사회 중심병원(안산) 등 지역밀착형 의료 랜드마크 육성이 올해 목표다.

2월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앞둔 이화의료원도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 양 병원 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과제로 내세웠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 “대내외 악재 여전... 단기 반등 어렵고 약세 지속”

## 2000선 무너진 코스피

美·中 무역협상 등 이슈 산적  
中 경기둔화 심화 예상보다 커  
바닥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워  
“브렉시트 이벤트도 변수 될 것”

코스피 지수가 연초부터 2000선을 하회하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막연했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실제 경기지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가 지수는 이미 모든 악재들을 반영한 상황으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과 국내 기업 실적 등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대내외 이슈들이 산적한 만큼 당

### 전문가 증시 전망

“단기간에 반등은 어려울 듯”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

“글로벌 경기둔화가 증시 끌어내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

“브렉시트와 미중무역분쟁 등 확인해야”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

“중국 정부 대응 나설 것”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

분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6.30포인트(0.81%) 내린 1993.7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기준으로 2016년 12월 7일 1991.89를 기록한 이후 2년 여 만에 최저치다.

중국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크다는 불안감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은 “중국의 경기둔화가 코스피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경기라는 게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은 어렵고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애플이 가이던스를 낮춘 것이 증시에 영향을 줬지만 결국에는 미국, 더 나아가 글로벌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시를 끌어내린 것”이라며 “특히 최근 나온 중국 제조업지표와 수출지표 등이 중국의 경기둔화 심화에 대한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내외 악재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국내

증시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긴 했으나, 중국 지도부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1월부터는 지방채 발행이 재개되는 등 추가적인 부양책 시행으로 중국 증시도 안정세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센터장은 “2월 중하순 무역분쟁 협상과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코스피 전망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

기 정도의 밸류에이션 하강이라고 가정한다면 1900선이 하방 지지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증시가 단기간 내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대내외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아직 남아있는 탓이다.

최 센터장은 “아직 바닥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도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면서 “기대할 것은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 증시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돼 있고 글로벌 증시도 하락 국면이라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분쟁 등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러한 이벤트 추이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관급공사 수행 위한 증자... 우발채무 우려

### 상장사 재무 분석

**비트로시스**  
작년 9월 말 부채비율 233%  
정부 사업 수주 낙관 어려워  
매각 통한 재무구조 개선 추진  
계열사 적자 행진도 발등의 불

비트로시스가 신용 위기에 빠졌다. 최근 진행하는 주주배정 우선공모 이상 증자(300억 원 계획)도 부채 상환을 통한 위기 탈출을 위한 교육지책이다. 조달자금은 전액 마이너스대출, 구매자금 대출, 일반대출 등의 채무변제에 사용된다.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부채가 핵심 사업의 매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차입금 상환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출 계획”이라며 “주요 거래처인 관급 수주 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자로 부채 상환 나선 이유 = 3월 말 결산 법인 비트로시스 부채비율은 2017년 3월 말 기준 80.30%에서 지난해 9월 말 233.85%로 급증했다. 동종 산업의 부채비율인 98%(2017년 말 기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비트로시스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등 관급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전력 자동화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사업 수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부채비율은 공공기관 사업 입찰의 주요 평가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이다. 부채비율이 높은 만큼 입찰업체의 관련

비트로시스 특수관계자 재무 요약 (단위: 백만 원)

	비트로에드컴		비트로미디어(별도)		비트로씨앤씨		
	7기 (2016.12)	8기 (2017.12)	9기 (2017.03)	10기 (2018.03)	10기 (2017.03)	11기 (2018.03)	
재무 상태표	자산총계	28,506	26,833	25,849	17,433	60,592	52,296
	부채총계	51,762	44,658	32,914	32,225	40,440	37,319
	자본금	5,200	5,200	5,380	5,380	3,714	3,714
	자본총계	-23,256	-17,825	-7,066	-14,792	20,152	14,977
손익 계산서	매출액	1,063	1,338	9,132	6,291	55,323	44,132
	영업이익	-2,085	-1,510	-494	-1,934	674	-1,582
	당기순이익	-3,357	5,432	-1,106	-7,726	492	-3,816
주요 재무지표	부채비율	-222.57%	-250.54%	-465.84%	-217.85%	200.68%	249.18%
	영업이익률	-196.11%	-112.79%	-5.41%	-30.74%	1.22%	-3.59%
	순이익률	-315.69%	405.82%	-12.11%	-122.81%	0.89%	-8.65%
	자본잠식률	547.23%	442.78%	231.33%	374.94%	해당없음	해당없음

평가 점수가 낮게 책정된다.

특히 외부감사인은 올해 상반기(4-9월)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비트로시스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의적 의문 제기는 2분기 당기순손실 163억 원으로 인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매각예정자산 330억 원 제외)을 84억 원 초과했기 때문이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며, 유동자산은 1년 또는 기업의 영업 주기 중간 내에 현금으로 전환되는 재산을 뜻한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한다면 해당 기업은 현금 경색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증자 성공해도... 우발채무 위험은 여전 =비트로시스의 기업 위험성 중 하나가 특수관계인 관련 우발채무다. 비트로시스는 특수관계자 관련 신용제공

총액 859억 원을 보유 중이다. 이 중 손상 처리되지 않은 금액은 780억 원이다. 특수관계자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지 못한다면 전액 손실 처리된다.

주요 특수 관계자는 비트로에드컴, 비트로미디어, 비트로씨앤씨다. 비트로시스는 비트로에드컴에 대여금 79억 원, 자금보충확약 311억 원의 신용공여를 했다. 또 비트로미디어에 297억 원을 대여하고 있고, 비트로씨앤씨를 대상으로 126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는 등 계열사 신용 규모가 상당하다.

우려되는 점은 해당 특수관계 기업의 누적된 적자다. 비트로에드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적자를 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사인 비트로미디어도 2014년부터 매년 적자(표적조)를 내고 있다. 채권상환 능력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추가적인 신용공여 항목의 부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 ‘넥슨’ 매각 소식에 계열사 줄줄이 상한가

게임기업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가 회사 매각에 나섰다 소식에 전해지자 계열사들의 주가가 3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넥슨지티는 가격 제한폭(29.98%)까지 상승한 8280원에 거래를 마쳤고 넷게임즈 역시 상한가인 9580원을 기록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자신과 부

인 유정현 NXC 감사, 김 대표 개인회사 와이즈키즈 등이 보유한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놓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NXC는 일본 상장법인 넥슨의 최대주주로, 넥슨은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넥슨코리아가 넥슨네트웍스와 네오플 등 계열사를 다시 지배하는 방식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2일 증가 기준 넥슨의 시가총액은 1조 2626억 엔(약 13조 원)으로 NXC 보유 지분 가치만 약 6조 원 수준이다. NXC가 보유한 유럽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스탑프, 고급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 등의 가치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전체 매각 가격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 기준 넥슨의 실적은 매출액 2349억 엔(약 2조4800억 원), 영업이익 905억 엔(약 9125억 원), 순이익 568억 엔(약5727억 원)을 기록했다.

## 투자자 마음은 상승? ELW 콜 거래 급증

거래량 매도보다 1.2배 많아  
시총 12兆... 전월대비 19% ↑

코스피 상승에 베팅한 주식워런트증권(ELW) 콜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장세가 길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 시가총액은 12조4378억 원으로 지난달(10조4545억 원) 대비 18.9% 증가했다. 이 중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ELW 콜(매수) 거래량이 풋(매도)보다 1.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닥을 짚은 코스피지수가 반등할 것이라 투자심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ELW는 미리 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거나(콜) 팔 수 있는(풋) 권리다. 가령 한 기업의 현재 주가가 만 원일 때, 해당 주식을 1년 뒤 1만1000원에 살 수 있는 ELW를 1000원에 산다. 1년 후 주가가 2만 원으로 오르면 ELW(1000원)를 행사해 1만1000원으로 2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때 투자자는 8000원의 수익(2만 원-1만1000원-1000원)을 올릴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9000원으로 하락하면, ELW를 포기해 1000원만 손해를 보며 된다.

증권가는 ELW 콜 거래가 늘어난 이유로 반등에 대한 기대를 꼽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무역분쟁과 미국 국제금리 급등,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약세장이 수개월

### ELW 콜 등락률 상위 종목

종목명	3일 증가	전월대비	등락률(%)
신영D444삼성전자콜	45	▲40	800
한국DK84글로벌콜	15	▲10	200
KBDA76SK텔레콤콜	15	▲10	200
한국DN47현대차콜	20	▲10	100
KBDA06이마트콜	40	▲20	100
한국DN36글로벌콜	45	▲20	80
한국DN57LG생건콜	70	▲30	75

※ 출처: 한국거래소

지속되면서 ELW 풋이 2000% 가까이 급등한 바 있다. 바닥을 짚은 코스피가 반등할 것이라 투자자들의 인식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강재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당장은 무너진 중국 경기와 무역분쟁 협상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국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 3월 초에는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ELW 콜 거래가가 장 많았고, 현대차와 기아차,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실적 개선세를 보이는 종목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신영D444삼성전자콜은 전월 대비 40원(800%) 오른 45원을 기록했다. KBDA47현대차콜(50%), 신영D408기아차콜(20%)도 크게 상승했다.

최강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와 행사가격이 정해져 있는 ELW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일 주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저가 매수로 인한 환율선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1월 3일 17:00, KST)

전일 대비 52,000원 (1.2▲) | 6개월 대비 -3,427,855원 (44.2▼)

전일 대비 7,800원 (4.8▲) | 6개월 대비 -346,371원 (66.9▼)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률(%)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률(%)
비트코인캐시	188,300	6,300 (3.5%▲)	모네로	57,200	2,600 (4.8%▲)
리플	410	5 (1.2%▲)	비트코인골드	14,750	360 (2.5%▲)
라이트코인	36,590	820 (2.3%▲)	이더리움 클래식	5,915	40 (0.7%▲)
대시	93,500	3,450 (3.8%▲)	퀀텀	2,549	71 (2.9%▲)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BTS 매거진' 독점판매... "한류 콘텐츠 기업 도약"

## 인터뷰

### 유지환 스포츠서울 대표

스포츠서울이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 육성에 나선다. 사명도 '한류타임즈'로 바꿀 예정인 만큼 미디어 기업에서 한류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스포츠서울 유지환(사진) 대표이사는 3일 이투데이와 서울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다이하드 비하인드 BTS, 방탄소년단 '데뷔 2000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류 콘텐츠 수출 사업을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스포츠서울은 최근 디스패치 매거진 '다이하드 비하인드(BEHIND) BTS' 편에 대한 전 세계 총판 및 출판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워너원, 뉴이스트, 세븐틴 등 한류스타를 중심으로 한 매거진 출판 및 판매사업도 준비 중이다.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는 '비하인드

'비하인드 BTS' 유통판권 보유 1분기 美·中·日 등 판매 계획 워너원·뉴이스트·세븐틴 등 추가 매거진 판매사업도 준비

BTS'로, 글로벌 유통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매거진은 올해 1분기 내 순차적으로 중국, 일본, 남미, 유럽, 미국 등 주요 지역에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통 판매 업체 선정 검토 단계에 있으며, 글로벌 유통 업체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 대표는 "글로벌 한류 스타 BTS 매거진 독점 판매는 회사의 실적과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4차 산업 혁명 먹거리인 글로벌 한류 콘텐츠 개발 업체로 도약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류 콘텐츠 개발의 문화를 선도하는 업체로 성장할 계획"이라며 "최근 한류 열풍은 BTS의 사



레저리즘한글에 대한 관심도까지 높일 정도로 세계적으로 조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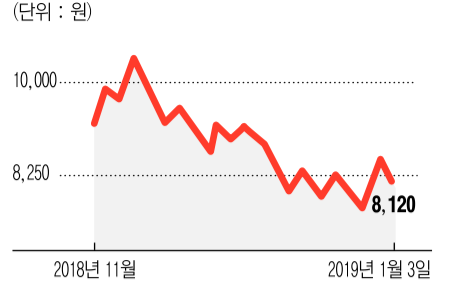
중장기 계획은 비하인드 BTS 성공을 전제로 지속적인 한류 콘텐츠 개발이다. 유지환 대표는 "(비하인드 BTS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네트워크 및 각종 사진 등의 콘텐츠가 글로벌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글로벌 콘텐츠 사업 육성 정책 후광도 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회사 내부에선 정부의 육성 의지를 기반으로 한류 콘텐츠 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 사업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총리는 글로벌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가 약 2조 달러(약 2232조 원)에 달하며 자동차 산업 약 1조3000억 달러(약 1451조 원)보다 약 1.5배가량 큰 블루오션으로 평가했다.

모회사인 한류그룹과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한류에이아이센터가 4월 7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예정대로 납입하면, 스포츠서울의 최대주주(지분율 10.99%)에 올라서게 된다. 한류에이아이센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기업으로 △AI솔루션 개발업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 제공업 △기타 금융 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최대주주 한류뱅크는 앞서 콘텐츠·엔터테인먼트 기업 키위미디어그룹도 인수한 바 있다. 한류그룹은 계열사를 통한 전방위적인 한류 콘텐츠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종민 기자 kjm@**

아스타 주가 추이



## 아스타, 미생물 검사장비 중국 임상결과 이달 발표 "이르면 상반기 매출발생 기대"

아스타가 중국위생허가(CFDA) 인증을 위한 미생물 검사장비 관련 임상시험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내 중국 임상시험 결과를 시장에 발표할 예정으로, 이후 최종승인까지 곧바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상반기에 현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스타는 말디토프 질량분석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생물 동정 및 식별 시스템 개발하고 있다. 주력 제품 '마이크로아이디시스(MicroIDSys)'는 미생물 동정용 시스템으로, 현재 중국 판매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임상시험, 유통전략 등은 파트너사 포선(Fosun)이 맡았다.

회사 관계자는 3일 "현재 중국 진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내 임상시험 종료 소식을 시장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종 자료를 정리하면 인증·판매허가를 위한 마지막 과정이 남았으며, 하반기 이전에 CFDA로부터 최종 결과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르면 상반기에 현지 매출 발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스타는 포선과 2022년까지 미생물검사장비 400대 등 약 600억 원 규모의 판매유통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회사 측은 "포선이 중국에서 대형 의료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CFDA 승인만 받으면, 현지에서 대대적인 유통이 가능하다"며 "아직 수주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600억 원 계약 이후에도 현지 상황에 따라 추가 계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기자 ljh@**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대체제>

## 국내 첫 'BMG' 제조품목 허가... 하반기 상용화 목표

기업 주식 담당자

### 주담과 Q&A

#### 셀루메드

셀루메드는 지난해 말 국내 최초로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대체제인 'BMG(Bio Meniscus Graft)' (제허18-823)의 식약처 제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유의미한 성과로 연결되면서 주가도 상한가로 직행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제품 상용화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관측이다.

- 무릎 반월상연골과 BMG 제품 치료 원리는

"무릎 반월상연골은 무릎관절 사이의 반달 모양의 조직이다. 과격한 운동 등으로 무릎 관절에 상처가 나면 종전에는 도려내는 방법이 주였다. 하지만 여기에 기존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BMG를 넣어줌으로써 완충 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고통을 줄인다."

- 제품 개발 계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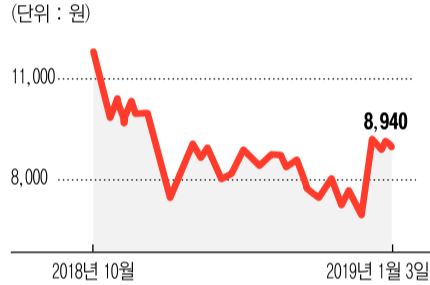
"해외에서 이미 출시된 제품을 수입, 판매하려 했지만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조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기술 연구·개발(R&D)에 나서게 됐

다. 2015년 처음 스크립스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개발을 시작해 식약처 임상 승인까지 약 3년 정도 소요됐다. 2017년에는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의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무릎 연골 재생시장 규모는 2023년까지 27억 달러(약 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5.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 임상시험과 상용화 예상 소요 기간은

"제품 상용화는 올해 하반기 또는 그 이전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고 연구자료를 갖춰져

셀루메드 주가 추이



있어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심의위원회만 잘 통과하면 된다. 국내 부분은 통상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임상에 드는 비용 역시 회사 재원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초기 단계인 만큼 협업을 논의 중인 대학병원명은 공개하기 이른 듯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뜰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러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경기도 기준〉

# 덩치값 한 대형아파트... 상승폭 중소형의 2배

## 오피스빌딩 가격 상승 2008년 이후 최대폭

지난해 오피스빌딩(서울 및 분당권역 소재 거래면적 3300㎡ 이상)의 ㎡당 매매가격 상승률이 2008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3일 신영에셋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까지 거래가 완료된 오피스빌딩의 거래건수는 72건으로 거래금액은 11조300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연간 거래금액인 7조8377억 원보다 3조4632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17년과 비교했을 때 거래건수는 1건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거래금액은 3조 원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해 이어진 대형빌딩의 거래 활성화와 ㎡당 매매가격 급등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건당 거래금액은 1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 증가했다. ㎡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486만5000원에서 지난해 527만8000원으로 8.5% 올랐다.

서지희 기자 jhsseo@

## 과천·성남 등 상승세 두드러져 다주택자 규제로 대형 갈아타고 저평가 인식도 구매 욕구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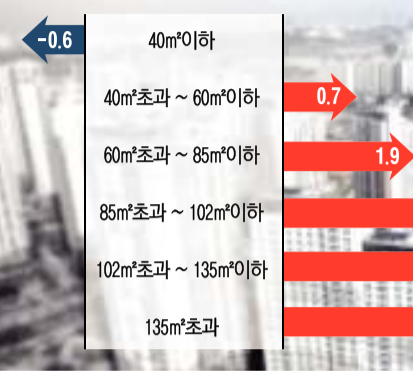
‘중소형 아파트 전성시대’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경기도는 대형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르는 한 해를 보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대형(전용 135㎡ 초과)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3.8%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지역에서 규모별 아파트가격 변동을 살펴볼 때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대형에 이어 ‘전용 85㎡ 초과~102㎡ 이하’ 중형이 3.69%, ‘60㎡ 초과~85㎡ 이하’ 중소형이 1.9% 상승률을 기록했다. ‘40㎡ 초과~60㎡ 이하’ 소형은 이 기간 0.7% 오르는 데 그쳤고, ‘40㎡ 이하’ 초소형은 0.6% 내려갔다.

특히 경기에서 과천·성남 등 비교적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속해 있는 경부1권(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에서 대형

경기도 대형아파트 변동률  
(단위 : %, 2017년 12월~2018년 12월 아파트가격 기준)



아파트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부1권 대형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8.72%로 규모별 상승률 중에서 가장 높았고 평균 상승률(6.47%)보다 2%포인트 이상 웃도는 상승 폭을 나타냈다.

다만 경부1권의 경우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금지로 인한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0월 보험(0%) 이후 11월(0.18%) 잠깐 올랐으나 12월에 0.18% 하락하며 평균(-0.12%)보다 낙폭이 컸다.

대형아파트 선호 현상은 동부1권(남양주·구리·하남·광주)과 경부2권(안성·용인·수원)에 옮겨붙는 형국이다. 특히 동부1권은 지난해 12월 평균 0.16% 오르는 동안 대형만 0.94% 상승했다. 경부2권 대형도 평균(0.25%)을 웃도는 상승률인 0.55%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저축하는 대책을 쏟아내면서 소형 여러 채를 정리하고 대형 한 채로 갈아타는 ‘뿔뿔한 한 채’ 흐름이 대형 수요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된

다. 특히 ‘중소형 전성시대’가 지속되며 상대적으로 중·소형 공급이 대폭 늘고 가격도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대형의 희소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다시 주목받게 된 셈이다.

안정세를 나타내는 서울에서도 대형은 강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 중 대표적인 사람이 9·13 대책 이후 상승론자에서 하락론자로 바뀐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다. 채 연구원은 2019년 주택시장을 전망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며 동시에 전용 85㎡ 이상 평형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9·13 대책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이어도 전용 85㎡ 미만인 주택의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70%나 적용됐다. 9·13 대책 도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장특공제가 사라지면서 중소형의 상대적 강점도 약화됐다. 이에 더해 중부세·공시가격 인상 등 여러 채 소유가 부담되는 상황서 부부 동반으로 대형 한 채를 소유하는 식으로 중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대기업도 공유오피스 ‘눈독’

### 롯데자산개발 워크플렉스 오픈 지난해 LG·롯데·신세계 등 진출 3년 만에 25배 ‘고속 성장’ 군침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유오피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때문에 기존 스타트업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던 것이 최근에는 대기업들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2일 롯데그룹 내 종합부동산 회사인 롯데자산개발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강남N타워’에 공유오피스 ‘워크플렉스(workflex)’ 1호점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워크플렉스 역삼점은 강남N타워 7~9층까지 3개층에 들어서는데 각 층 전용면적은 약 940㎡(280여 평)이며 전체 약 2800㎡(860여 평) 규모로 1인실부터 63인실까지 다양한 오피스 공간을 선보인다.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코워킹 비즈니스 생태계를 열어갈 것”이라며 “워크플렉스 역삼점이 스타트업의 창업 열기로 가득한 테헤란밸리의 핫(HOT)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자산개발의 진출로 공유오피스 시

장의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유오피스 시장은 다국적기업인 위워크가 독주하고 패스트피브, 르호봇 등 전문기업들이 이끌어가는 체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LG그룹 계열사인 에스앤아이가 양재역에 공유오피스 ‘플래그원 강남캠프’를 오픈한 데 이어 롯데물산도 지난해 말 프리미엄 공유오피스 브랜드 ‘빅에이블’을 롯데월드타워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세계인태너셔널도 지난해 청담동에 패션에 관심 많은 크리에이터나 패션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패션에 특화된 공유오피스 SI랩을 오픈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6년에는 아주그룹 계열인 스파크플러스가 사업에 진출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카드도 2017년부터 스튜디오 블랙으로 공유 오피스 시장에 진출했다.

이처럼 대기업들까지 앞다퉀 공유오피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결국 높은 성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은 말 그대로 급성장세다. 2015년 1월만 해도 단 2개에 불과했지만 2018년 3분기 기준 국내 공유오피스는 총 57개 업체, 192개 지점, 12만평(39.6만㎡) 규모로 약 25배나 늘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헬리오시티 행복주택 1400가구 3월 입주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송파 헬리오시티에 행복주택 신청자들도 조만간 집들이에 들어갈 예정이다.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송파 헬리오시티에 공급된 행복주택 1400가구의 입주가 3월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송파 헬리오시티에는 행복주택 39·49·59㎡ 타입이 공급됐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7440만~1억5211만4000원, 월 임대료는 26만400~53만24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번 행복주택은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50%로 설정해 청약울 실시했다. 지역 우선 공급비율은 기존에 80%였

으나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급지역 외 자치구 거주민에게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청약은 작년 9월에 실시됐다.

현재 SH공사는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일부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파 헬리오시티의 행복주택 청약 평균 경쟁률은 약 12대 1로 나타났다. 1401가구 모집에 1만6744명이 신청했다.

최고 경쟁률은 59㎡ 타입에서 나왔다. 10가구 몰량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 537명이 몰려 5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티레이더

인공지능 트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쉬운 투자, 어려운 수익

투자 타이밍이 더 유익하다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5%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금융투자 협회 심사필 제18-01051호(2018.03.06 ~2019.03.05)



# 노무현 일가 뇌물 의혹 1년여 만에 고발인 조사

## 檢 출석 주광덕 의원 “대검 캐비닛 열어 진상규명해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주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 빨리 열어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1년 3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그동안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 당시 진술인들의 상세한 진술 등이 담겨있는 대검 캐비닛을 열어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적폐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철호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건호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받은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3년 2월까지 지났다. 이런 의혹은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 때부터 불거졌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앞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자녀 건호·정연 씨, 조카사위



철 없는...홍매화가 벌써 3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 한파 취약가구에 난방비 등 최대 1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다.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4년간 총 4만8143가구에 총 201억 2700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겨울철 한랭질환자는 2013년 258명에서 2017년 63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랭

질환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8명이 사망했다. 이에 서울시는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대해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희망운동·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병행해 취약계층을 돕는다.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이불,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 지원도 할 예정이다.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설경진 기자 skj78@

### “유사성행위 알선 처벌 法조항 합헌”

유사성행위를 알선할 경우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률상 유사성행위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첫 판결이다. 현재는 A 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유사성행위 알선자 처벌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성매매 처벌법상 유사성행위가 어느 범위의 신체적 접촉을 가르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변종 성매매 영업이 확대 재생산되는 실태에 비춰 입법 기술상 유사성행위의 형태를 일일이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효진 기자 js62@

##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징역 2년 법정구속

###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최윤수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지시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는 최 전 2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이 추 전 국장에 적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감찰관 사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윤한솔 기자 charmy@

##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2019. 01. VOL. 009

프래디 매거진의 고집, 남다른 정서,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이야기.

그라운드 브레이크, 프리퀀시,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이야기.

모던한 실러너 입마의 합성, 자연스러워진 수미의 단란

세계를 호령한 (K-pop) 아이돌 강현숙

커리어 50년, 인생 100년대의 대담. 10+세대, 10+세대, 10+세대. 10+세대. 10+세대. 10+세대.

남몰래는 다르게, 누구보다 노년기에 관대하고 기쁨을 지니고 고수가 된다

# Guru

### COVERSTORY 광내고 기름칠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PART1. 고수의 품격 - 멈추지 않는 한, 누구나 인생 고수가 된다  
 PART2. 대한민국 고수들 모임 - 구루(guru)가 되기 위해 땀 흘린 연출협동조합  
 PART3. 도전의 고수 - 최고령 보디빌더 서명강 씨, 인스타그램 스타 김석재 씨  
 PART4. 생활의 고수 - 도시 속, 미용 고수 장성미용실 신상순 씨  
 PART5. 재능의 고수 - 외국에서 더 밝히는 성유공예작가 이소라 씨  
 PART6. 술은 고수를 다 모여 - '술고' 술은 고수를 찾습니다  
 PART7.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 동년기자들의 답론

### 특별이징 머릿속 폭탄 뇌졸중, 의심되면 무조건 응급실 찾아야

흔히 증봉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중장년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 특히 겨울철엔 더욱 속을 썩인다.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데다, 후유증이 고생하는 주변의 시선을 보면 불안감은 배가된다. 게다가 '알츠하이머, 즉 알병 후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남재라는 사실은 더욱 시니어를 옥죄는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서권덕(徐權德·40) 고수를 통해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자.

### 박완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말리지 매 난 일밖에 몰라 겨울 캄바음이 많치게 몰아치는 산골이다. 마음의 품은 넓적해 한철한 맛을 풍긴다. 신비할 따라 충동이 들었던 주박. 잠자리다 시원하게 딱 트인 조망을 자랑할 게다. 가구 수는 50여 호. 90%가 귀촌이나 귀농을 한 가구다. 하, 귀촌 귀농 바람은 바야흐로 거센 조류를 달아간다. 마을 이장은 김종음 씨. 그는 이 마을에 입성한 1호 귀농인이다. 그의 소꿉나 후천에 이끌려 이곳으로 당당히 귀촌한 지인들도 많다고.

### 신라산가 만난 사랑

질 다스린 상처는 아픔을 건다는 말이 된다. 최현숙 구슬생사 작가

요란치적 실려낸 영마의 음식(저민치 혀의까지 일리고파 한식 전도시 채우 감수미

미나일이 러서리를 만들고 열차가 끊어지게 한다. 주한 외교관들에게 사랑받는 픽터 김

### 타박타박 도보여행 피란수도 부산의 추억을 더듬는 길 <초랑이바구길>

수도권 거인이 영하로 폭 떨어진 날, 부산역에 도착했다. 평소대로라면 부산역 옆 돼지국밥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 말아먹고 여행을 시작했을 것이다. 오늘은 초랑이바구길에서 시골맛국을 먹기로 했다. 구수한 시골맛국을 호호 불어가며 먹을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 머니테크 한겨울 녹이는 뜨거운 예금 열풍... 이자가 뭐길래 '고금리 인진지대로..'

코스피지수가 한때 연 고점 대비 20% 넘게 추락하는 등 격렬하게 요동치면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늘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19년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내다본다.

<b>시니어 밥상</b> 홈메이드 사랑음식 <b>당뇨에 좋은 한 끼로</b> 새해는 더욱 건강하게	<b>부치지 못한 편지</b> <b>꽃 피는 날</b> <b>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b> 이규리 시인
---	--



# 떠오르는 태양에 꿈을 담아... “반가워요 기해년”



1

1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침공양 전 장엄한 산사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남양주 봉선사. 2 안성 고삼호수는 영화 촬영장으로 알려지면서 독특한 호수의 풍경에 매료된 사진 애호가들이 꾸준히 찾는 촬영 명소다. 3 화성 건달산에서는 새벽 등산로 따라 걸은 후 전망 데크에서 일출을 맞이할 수 있다. 사진제공 경기관광공사

순식간에 무술년 한 해가 저물었다. 못 다 한 일들이 아쉬운 것도 잠시, '기해년'이라는 또 다른 해가 떠올랐다. 새해는 언제나 설렌다. 작심삼일일지라도 계획 역시 언제나 알차다. 2019년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담으려 당신이 원하는 태양을 만나러 가자.

1년 중 해돋이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때가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지금이다. 푸른 새벽 하늘 별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일찍 도착해 일출을 기다리며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가다듬고 새 마음을 다져보는 것을 추천한다. 예보된 일출시간 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니 조바심도 나지만, 눈부신 새해의 빛이 가져다 줄 행운을 기다린다.

◇ **몽환적 물안개 일출 '안성 고삼호수'** = 안성의 고삼호수는 경기도 최고의 일출

포인트다. 원래 농업용수 확보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낚시터로 더 유명해졌다. 영화 '섬'의 촬영 장소로 알려지면서 독특한 호수의 풍경에 매료된 사진 애호가들이 꾸준히 찾는 촬영 명소이기도 하다.

특히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풍경은 신비로움을 넘어 몽환적이다. 자욱한 물안개 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는 새벽부터 달려온 고생에 비해 과분할 정도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감상하게 만든다.

추천 일출 감상 포인트는 고삼면 향림마을회관 인근이다. 안전한 마을 길에서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작은 언덕을 넘어 보이는 호수, 좁은 돌레길을 돌아서면 마주하는 호수, 마치 여러 개의 호수가 모인 듯 길과 방향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도 감상

## 영화같은 물안개 '안성 고삼호수' 새벽예불 해맞이 '남양주 봉선사' 서해 최고 일출명소 '화성 건달산'

호수의 매력이다.

◇ **장엄한 산사의 일출 '남양주 봉선사'** = 봉선사는 국립수목원 인근에 있는 큰 사찰이다. 고려시대에 세워져 조선 예종이 광릉의 능찰로 지정하며 '봉선사'라 이름 지었다.

전각의 이름이 모두 한자로 써진 다른 사찰과 달리 경내 곳곳에 있는 한글 현판이 인상적인 곳이다. 사찰의 중심이자 부처를 모신 전각의 이름도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이 아닌 '큰법당'이고 현판도 '큰법당'이라는 큼지막한 한글로 쓰여 있다.

봉선사는 전통문화와 불교 정신이 만나는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한데, 새벽 예불을 마치고 아침 공양 전 장엄한 산사의 일출

을 감상할 수 있다. 높은 봉우리 사이로 붉은 빛이 번지는 풍경은 보기만 해도 설레고 어떤 명화보다도 아름답다.

일출 감상 포인트는 봉선사 템플스테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운당과 참가지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휴월당 근처다. 멀리 축령산과 철마산 사이로 떠오르는 감동적인 산사의 일출, 그 특별한 풍경 속에서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면 어떨까.

해맞이 후에는 '숲속 걷기 명상'에 참여해 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의 원시림 구간으로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만 개방되는 '비밀의 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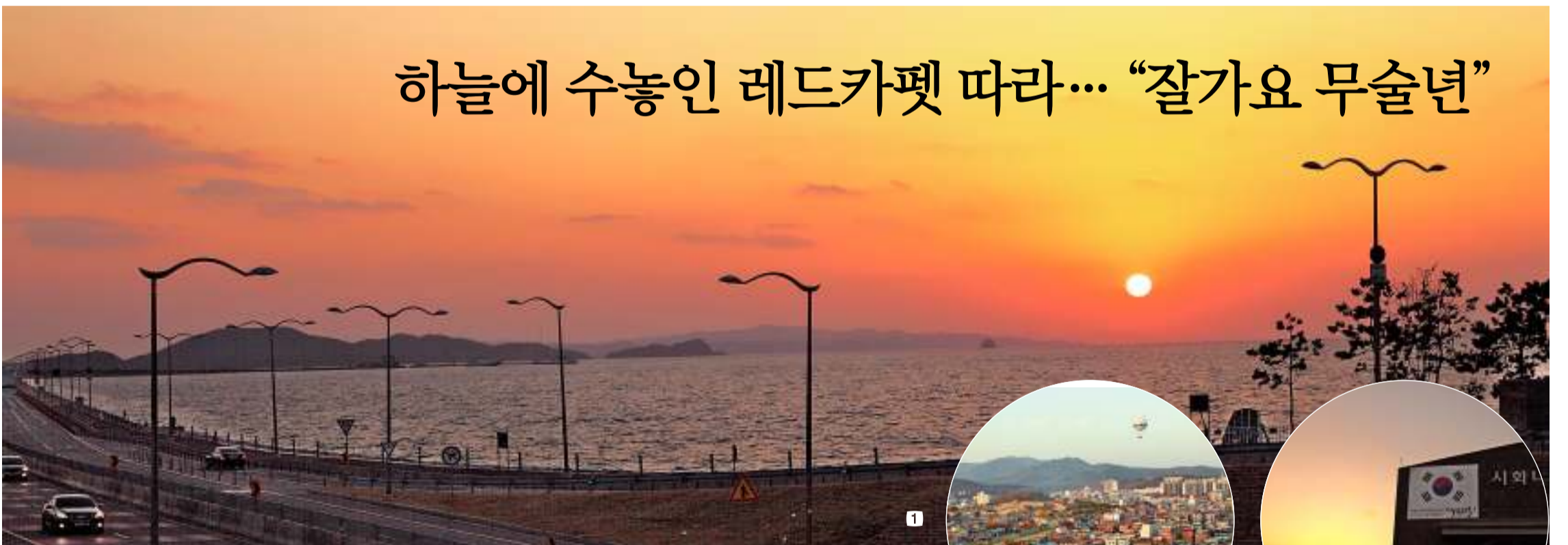
◇ **서해를 품은 화성의 일출 '화성 건달산'** = 서해 바다를 품은 화성. 높은 산은 없지만 잘 정비된 등산로와 소박한 돌레길을 품은 산이 여럿이다. 팔탄면과 봉담읍에 걸쳐 자리 잡은 건달산은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가장 먼저 태양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른 새벽 등산로를 따라 건달산 능선에

오르니 푸르스름한 동쪽 하늘에 붉은빛이 감돈다. 다리가 빠근하고 숨이 차지만 쉽터는 그냥 지나치지기로 한다. 예정대로 정상에서 일출을 보려면 마음이 급하다. 운동기구들이 놓인 작은 공터를 지나자 계단 위로 보이는 건달산 정상 표지석이 반갑다.

정상에서 숨을 고르며 일출을 기다린다. 잠시 후 맞은편 태봉산 위로 붉게 떠오르는 일출 풍경은 이름난 높은 산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큼 아름답고 웅장하다. 정상 아래 날찍한 전망데크가 설치돼 주변 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기 좋고, 백패커들에게는 비박 장소로 애용되는 곳이다.

건달산의 여러 등산로 중 추천코스는 B코스. 흰돌산기도원에서 시작해서 능선을 따라 정상까지 오른 후 세곡리로 내려오는 3.3km 거리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비교적 짧은 산행으로 수려한 풍경과 눈부신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가벼운 차림으로 나서도 좋은, 화성의 새로운 해맞이 명소다. 김소희 기자 ksh@



# 하늘에 수놓인 레드카펫 따라... “잘가요 무술년”



1

1 안산 시화나래휴게소는 바다 위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경기도 최고의 일출 명소다. 2 노을빛전망대는 수원시민들이 노을을 감상하기에 부담없는 곳이다. 3 일몰 시간에 맞춰 시화나래휴게소에 서 있으면 환상적인 풍경을 맞이할 수 있다. 사진제공 경기관광공사

잔잔한 바다 위로 황금색 용단이 펼쳐진다. 일출이 감동적이라면 일몰은 언제나 감성적이다. 낙조를 보고 있노라면 잊었던 추억과 사람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이 때문이다.

차분히 지난날을 정리하며 돌아보면, 기뻐던 일보다는 아쉬웠던 순간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래도 희망찬 새해가 있기에 노을 속에 잘 갈무리하고 희망을 이야기해 본다.

◇ **황금빛 용단, 붉은빛 여운 '안산 시화나래휴게소'** = 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시화방조제 가운데에 위치한 시화나래휴게소. 바다 위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경기도

의 최고의 일출 명소다. 일몰 전망 포인트는 시화나래휴게소 건물 2층 전망대와 휴게소 뒤편 바다공원이자. 도심에서 가깝고 사람도 붐비지 않으니 그저 잠깐 차를 몰고 오는 수고만으로도 감성적인 노을을 마주할 수 있다. 서해의 바람을 맞으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서해의 풍경을 오롯이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태양이 마지막 붉은빛을 발산하면, 여기저기서 '와!' 하는 감탄과 함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가 요란하다. 이윽고 오늘의 태양이 멀리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춘 후에도 일몰의 여운은

## 낙조 드라이브 '시화나래휴게소' 이름값 그대로... '노을빛전망대'

길게 남는다. 휴게소의 가로등이 켜지고 방조제를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이 빠르게 멀어져 가면 내일을 위해 한 숨 쉬어가자.

◇ **노을빛에서 노을빛에게 '수원 노을빛전망대'** = 역사의 도시 수원의 노을 풍경이 아름다운 곳은 어디일까? 우선 수원화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서장대, 헬륨기구인 플라잉수원, 마지막으로 노을빛전망대를 꼽을 수 있다.

겨울인 만큼 서장대는 걸어서 오르기부

담스럽다. 헬륨기구인 플라잉수원은 바람이 심하면 운영하지 않고 노을 시간에 맞추기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수원화성 봉돈과 가까운 수원제일교회의 노을빛전망대를 추천한다. 수원제일교회는 1953년에 설립되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교회로 유럽의 고성 같은 웅장한 교회 종탑 상층부가 노을빛전망대다.

수원시와 교회가 협력해 만든 곳으로 날씨에 상관없이 방문해 눈부신 노을 풍경을 오래 감상할 수 있다. 2012년 개방한 이래 꾸준히 발길이 이어지며 지금은 수원을 찾

는 여행객들의 필수 관광코스가 됐다.

이름처럼 해 질 녘 풍경이 수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팔달산 위로 펼쳐지는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화성의 성곽과 인근 마을에 불이 켜지면 반짝이는 수원의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교회는 수원화성의 남문 인근에서 가장 높고 뾰족한 건물이므로 쉽게 찾을 수 있다. 평소에는 전망대가 잠겨있으니 1층의 교회 사무실에서 열쇠를 받아가면 된다.

김소희 기자 ksh@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 ASK KB 증권

## 물어보세요! KB증권이 또 어떤 길을 개척할지

복합점포 확대, 비대면 계좌개설로 증권만의 새로운 길을 열고  
베트남 진출로 해외 투자의 성공적 길을 열어가는 KB증권!

국민의 투자에 힘이 되도록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KB증권은  
그 어떤 투자의 물음에도 답하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4211호(2018년 10월 22일~2019년 10월 17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KB 증권

#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 뭘까 고민했죠”

## ‘생활SOC’로 기재부 ‘정책MVP’...김명중 예산정책과장

### 도서관·체육관 지어 낙후 지역을 살 만한 동네로 리모델링 “의도하진 않았지만 토목·건설 전통 SOC 보완 효과도 기대”

“2019년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 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으로 정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라 보다 국민 삶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던 중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면 좋겠다, 체육이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거나 고령화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거나 또 환경이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들에 중점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실무작업을 시작했다.”

김명중(사진)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은 2018년 기재부 ‘정책 MVP’로 선정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다. 도서관, 체육관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SOC 사

업들을 끌어모았다. 다시 그 사업을 10개 부문으로 추려 ‘지역 밀착형 생활 SOC’라고 이름 붙였다. 예산도 지난해 5조8000억 원에서 올해 8조7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 비슷한 사업 계획들을 마련했다. 그 결과 생활 SOC는 정책 전문가와 기재부 출입기자단, 일반 국민이 참여한 투표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뽑혔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지원사격이 힘이 됐다. 김 과장은 “처음 대책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을 때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직접 ‘지역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했



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생활 SOC를 요약하면 ‘낙후된 지역들을 살 만한 동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표다. 가령 농·어촌지역에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그곳은 단순히 ‘책 읽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여름철 더위 쉼터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박물관, 공연장 등 불거리와 실내 체육

관이 생기면 주민들은 꼭 도시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녀 혹은 가족과 활기찬 휴일을 보낼 수 있다.

정부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축소 추세인 전통 SOC를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 과장은 “토목이나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전통적 토목 SOC들이 축소되고 있지만,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활 SOC도 토목이나 건설을 수반하게 돼 전반적인 SOC의 양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백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 과장은 “사실 생활 SOC가 중장기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내부적으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지난해 11월 발족한 생활 SOC 추진단이다. 적어도 3년간은 추진 계획을 짜 정책 기조를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박성준 전 한은 기획협력국장 금융연수원 부원장에 선임

금융연수원은 2일 이사회를 열고 박성준 전 한국은행 기획협력국장을 신입 부원장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신입 부원장은 1988년 한은에 입행해 정책기획국 정책분석팀장, 제주본부장, 공보관, 발권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협력국장을 역임했다. 1963년생으로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임기는 7일부터 3년간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신임 의료분쟁조정중앙위원회 윤정석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보건복지부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앙위원회에 윤정석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이 3일 임명됐다.



윤 신임 위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5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공정위, ‘2018년 공정인’에 황상우 사무관 선정

###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유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기술유용감시팀 소속 황상우(사진) 사무관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황 사무관이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 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



·공급하도록 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이대훈 농협은행장, 격오지·해외근무 직원과 새해 화상통화



NH농협은행은 이대훈(오른쪽)은행장이 새해를 맞아 격오지 및 해외 사무소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화상통화는 이 행장과 최동단 영업점 울릉군지부, 최남단 완도군지부,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지점 등 3개 사무소가 동시에 참여하여 진행됐다. 객진산 기자 jinsan@

## 인사

◆국세청 ·본청(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팀나준선(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상일 △국세통계담당관실 임상현 △국세통계담당관실 고광덕 △비상안전담당관실 신동우 △전산기획담당관실 김일도 △빅데이터추진팀 조운석 △감사담당관실 정동주 △감사담당관실 김시형 △감찰담당관실 하신형 △감찰담당관실 장성우 △감찰담당관실 이연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수 △심사1담당관실 한태임 △심사1담당관실 변영희 △심사1담당관실 정봉근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류승중 △징세과 김태성 △징세과 이병택 △징세과 이동현 △법무과 김도균 △법령해석과 방선아 △세정홍보과 김민수 △세정홍보과 전왕기 △부가가치세과 박현수 △소득세과 박욱임 △소득세과 허남승 △소득세과 정상진 △법인세과 김지연 △소비세과 이인우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조사기획과 송원영 △조사1과 강찬호 △조사2과 정해동 △국제조사과 홍성미 △조사분석과 김성범 △장려제세운영과 고병재 △장려제세신청과 임영미 △장려제세신청과 이주석 △하자금융상환과 진우형 △대변인실 송평선 △완도지부장 최길석 △경북지부장 백철호 △사천지부장 강병욱 △전북지부운영관리센터장 임상호 △여수지부운영관리센터장 김주성 △경북지부운영관리센터장 김중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단장> △운영지원단장 박세규(팀장) △청사관리팀장 이승구 △정보보안팀장 문석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홍보협력실장 최진선 △문화경영실장 이종우 △연구자산실장 박희 △지식정보실장 황동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지원 김영덕 △연구지원 나경연(보직) △연구본부장 김영덕 △법제혁신연구실장 최석인 △인프라금융연구실장 이승우 △미래기술전략연구실장 손태홍 △주책도시연구실장 허윤경 △출판자료실장 이형우

◆한국무역협회 <신규 보임> △비서실장 박형선 △통상지원단장 제현정 △센터경영실장 이명자 △FTA활용지원실장 고범서 △혁신생태계실장 박경진 △유라시아실장 조빛나 △온라인마케팅실장 박민영 △무역빅데이터실장 박진표 △취업연수실장 이동원 △체주지부장 이인석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천일 △인사총무실장 한창희 △회원지원실장 조운재 △회원서비스실장 이관재 △물류서비스실장 박성환 △남북협력실장 윤신영 △FTA원산지지원실장 홍성해 △차이나데스크 실장 안윤근 △정책협력실장 권도겸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 조상현 △아중동실장 추민석 △중국실장 서욱태 △해외마케팅실장 신선영 △신성장연구실장 박준 △전략시장연구실장 심남섭 △무역연계전세충남지역본부장 김용태 △인천지역본부장 박귀현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이창선 △전북지역본부장 이강일 △경남지역본부장 최주철 △도쿄지부장 박용규 △워싱턴지부장 장상식 △상하이지부장 심준석 △뉴델리지부장 정희철 △자카르타지부장 김영준 <1직급 승진> △재무관리실장 고재수 △국제협력실장 이미현 △미주실장 장상식 △무역연계수실장 조운재 △워싱턴지부장 추민석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용산마포

영업본부 김기철 △변화추진본부 노유정 △브랜딩본부 오정택

◆신한생명 <상무 선임> △준법감시인 정석재 <본부장 선임> △수도본부 오동현 △홍보팀 원경민 △VA본부 박종진 △고객지원팀 임상현 △FM본부 김순기 <본부장 전보> △GA본부 윤중수

◆ABA금융서비스 <임원> △대표 신완섭 △경영관리본부장 김우성 △미래본부장 안중신 △창조본부장 황재선 <미래본부 지점장> △베스트지점장 권철민 △상무지점장 오종덕 △아레나지점장 장종호 △가온지점장 홍정우 △강인지점장 홍재선 △금탑지점장 박진오 △명인지점장 김대만 △아이엘지점장 김현승 △중양지점장 김영진 △한강지점장 이형연 <창조본부 지점장> △경인지점장 백충범 △남춘천지점장 이수용 △속초지점장 박현실 △신화지점장 김영미 △의정부지점장 임성욱 △남대문지점장 강숙희

◆NH투자증권 <부장 신규선임> △실물자산 금융부 신호상 △시너지추진부 정해웅 △리스크지원부 김재선

◆키움증권 <전보> ◇임원 업무 조정 △경영기획팀 · 업무개발팀 · IT기획팀 · 정보보안팀 · 디지털금융팀 담당임원 노진만 △글로벌영업팀 · 리테일금융팀 · 리테일전략팀 · 투자컨텐츠팀 · 영업부 담당임원 김희재 △법인금융3팀장 장영수 △구조화금융팀 · 대체투자팀 담당임원 장승식 △법인영업팀 · 법인대차팀 담당임원 남현우 △패시브Sales&LP팀장 최혜경 ◇팀장 임명 △법인영업팀장 백승훈 △법인대차팀장 박정호 △대체투자팀장 이종욱 △디지털금융팀장 김산 △경영기획팀장 박영민 △자금팀장 노태승

◆삼성생명 <신규 선임> △국내영업본부장 김태현 <상무 승진> △경영지원실장 김장우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사업가치평가 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염성오 <부부장·실장·전문위원> ◇사업가치평가 본부 E&I 부문 부문장 신용철 ◇기업본부 평가2실 평가전문위원 조원우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재현 ◇사업가치평가 본부 부등산실 실장 금중환 ◇사업가치평가 본부 E&I 2실 실장 조운상

## 게시판

### 한국경영과학회장 윤문길 항공대 교수

한국경영과학회는 윤문길(59)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제2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12월 31일까지다. 1976년 6월에 창립한 한국경영과학회는 현우 과수 일경영과학회상과 차동완젊은경영과학자상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표준과학회 ‘명장’에 김현문·오연균 씨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김현문(59·왼쪽 사진) 책임연구기술원과 오연균(58) 책임연구기술원을 ‘2019 KRISS 명장’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방사선표준센터 김현문 책임연구기술원은 다양한 표준기와 방사선조사장치를 개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선 측정표준을 확립했고, 열유체표준센터 오연균 책임연구기술원은 30년 이상 유량 분야 담당자로 근무하며 상압기체유량 표준시스템 개발·유지·보급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 부음

◆김말순 씨 별세, 박영호(현대모비스 수석)·영민(삼성자산운용 법인마케팅본부장)·인순·미숙 씨 모친상 = 3일,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5일, 02-2002-8439

◆고정덕 씨 별세, 김양하(전 매일경제 TV 국장)·철하(전 쉐니스코리아 상무)·은경 씨 모친상, 좌용호(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 씨 장모상, 김정민 씨 시모상 = 2일,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02-2290-9452

◆아주경제 △인사총무팀 부장 시대근  
◆아시아타임즈 △주필 강현직 △총무이사 조민수 △편집부장 이진형 △뉴미디어부장 겸 사회부장 이원일

이필상 칼럼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달라 경제가 갈팡질팡한다. 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신년회를 열고 산업전 분야에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수 있다고 다시 한번 혁신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새해, 경제 어떻게 일으키나

새해가 밝았다.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폈으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우리 경제는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가 큰 구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직적 하청관계다. 부유층과 시민층의 소득격차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가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오히려 저소득층 실업이 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보완이 없다. 자칫하면 지난해 나타난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확대 재생산해 경제를 난국으로 밀어 넣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새해에 2.6~2.7%로 낮추고 취업자 증가도 3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적게 잡았다. 정부도 경제에 대해 자신이 없어 보인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우리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1년 반의 시간을 허비했다. 새해 정부 정책이 실패해 다시 곤두박질하면 경제는 희망이 없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보안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르네상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30조 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투자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 우리 경제에 절실한 것은 성장동력과 고용창출 능력 회복이다. 산업의 새로운 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산업체질과 구조를 혁신해 기업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막상 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인상에 이어 또다시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기업이 부담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경제불안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지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정책전환이 아니다. 특히 경제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수정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공식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경제불안을 재촉하는 일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은 국제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까지 위태하다. 내수의 극심한 침체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빈사 상태다. 근로자의 실업난과 가계부채 고통이 사상 최악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달라 경제가 갈팡질팡한다.

문 대통령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신년회를 열고 산업 전 분야에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수 있다고 다시 한번 혁신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의 속도조절, 신산업 발굴, 규제와 노동개혁 등 경제혁신에 필요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미숙의 참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산센터 전문위원

국가 연구 인프라, 이제는 SW에 투자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 인프라'는 과학기술 창출의 기반이 되는 지원체계, 즉 연구시설·장비, 연구자원, 연구정보 등을 총칭한다. 특히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자원과 연구정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자원으로, 미국·EU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과학기술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확보·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라 확충은 2000년대 초부터 정부 주도로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되어 왔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에 투자된 연구장비비는 4조9660억 원으로 보고되어 있다.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장비의 구축에 해마다 약 8300억 원의 큰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성장의 변곡점을 이루었던 1980년대 말, 대학에서 연구에 필요한 고가 연구장비의 개별 구축 및 운영이 어려워 연구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초과학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을 제공받아 고가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전문 운영인력이 연구 지원을 하는 체계로, 불과 30년 전의 연구환경과 현 상황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이다.

물, 특수설비, 연구장비, 그리고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연구시설의 특성에 따라 그 일부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연구개발, 국제협력연구, 인력양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NFEC의 장비활용 종합포털사이트(ZEUS)에 대형 가속기,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하나로 원자로 등 122건의 대형 공동 활용 연구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센터들이 각 지역별로 구축되어 기초연구와 산업 간의 연계 강화로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후 실제 운영·활용에는 한계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출연연의 경우 사업비에서 일부 운영예산을 충당할 수 있으나, 특히 지역 소재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운영 예산 및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효율적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형 연구시설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

그러나 전국에 구축되어 있는 연구장비·시설의 경우, 구축 당시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 로드맵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 계획과 연계 없이 장비·시설의 하드웨어 구축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구축

연구기관 지역 조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는 요즘,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구축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사람에게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의 지역 조직과 지역 특화 산업 지원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연구 결과의 성과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의 방향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형 연구시설 로드맵을 구축하고, 구축 단계부터 효율성 제고, 운영예산 및 인건비 등과 연계한 계획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연구장비·시설을 구축해야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아이작 뉴턴 명언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의 과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제임스 맥스웰과 함께 물리학의 3대 거장으로 추앙받는다. "물리학의 1/3(고전역학)은 뉴턴이, 1/3(전자기학, 통계물리)은 맥스웰이, 1/3(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완성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 고사성어 / 음수사원(飲水思源) 물을 마실 때 수원(水源)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근본을 잊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 남북조시대 양(梁)나라의 유신(庾信)이 쓴 징조곡(徵調曲) 중 "열매를 딸 때는 그 나무를 생각하고(落其實者思其樹),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한다(飲其流者懷其源)" 구절을 줄인 '낙실사수 음수사원(落實思樹 飲水思源)'에서 나왔다.

☆ 시사상식 / 소녀효과(Girl Effect) 정규 교육을 받은 소녀가 성장해서 돈을 벌면 90%를 가족에게 투자할 것이므로 소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중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데서 나왔다. 2009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공식 의제에 빈민권에 사는 소녀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포함시키면서 나온 용어다.

☆ 속담 / 똑똑한 머리보다 얼떨떨한 문서가 낫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적어두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 유머 / 미인을 얻는 비법 초등학교생 아들이 아버지에게 같은 반 여자 아이를 좋아하는데 어떡하냐고 고민을 털어냈다. "이쁜가 보구나. 좋아한다고 말해라. 용기 있는 남자만이 미인을 얻는 법이란다."

이들의 대꾸. "그럼 아빠는 엄마랑 결혼할 때 용기가 없었나 봐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정책을 많이 쏟아내는 것과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기자가 한 중소기업협회 회장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요즘 정부가 지원책을 많이 내놓는데 올해는 사업을 할 만 할까요?"라고 묻자 되돌아온 대답이다. 그는 "경제부총리도 중소기업법부 장관도 현장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썰기를 박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최근까지 총 5차례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대상 종합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중소기업 살리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11조 원을 투입했고, 올

기사수첩 임기훈 중기IT부/shagger1207@

경제정책, '선의'만으로는 안 된다

해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2일 창업지원자금으로 총 1조11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작년 대비 자금 규모가 44% 늘었고 참여 부처가 2배 많아졌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작년 말 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하에 '제로페이'가 출범했고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은 '앞에서는 주고 뒤로는 주머니 털어간다' 식의 반응이다. 작년 세일 정부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은 사업을 접거나 돈 안 주고 범법자가 되던가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은 그들만의 '푸념'은 아니다. "스타트업 수 늘리는 데만

신경 쓴다"라는 한 중소기업단체 회장의 일갈이나 "이익공유제가 벤처기업들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 반갑지만은 않다"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의 말을 정책 입안자들이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는 다양한 정책들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는 '선의'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결국엔 전반적 경제정책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A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자영업 장사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 결국 매출을 올리려면 경기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정책이든 경기부양이 전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편집부, 사회경제부, 유통바이오부, 뉴스팀, 국제경제부, 중기IT부, 사진팀, 금융부, 자본시장부.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99-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올해 해외 건설 수주 전망은

이전기 해외건설협회장

“6조 금융지원 프로그램 ‘단비’ 기대”

“협회장 취임 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3년 만에 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19년에도 30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희망해 봅니다. 저는 복이 많습니다.”

‘복(福)’의 기운이 감돈다는 ‘기해년’이 밝았다.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돼지띠’의 해이기도 하다. 이전기 해외건설협회장은 복이 많은 2019년을 맞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건설업계가 해외 수주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했지만, 건설사들의 의지와 정부 정책이 맞물리면서 해외사업에 청신호를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다. 2018년 무술년을 보내기 며칠 전 이전기 협회장을 만났다.

이전기 협회장은 올해 해외 수주 전망을 묻는 말에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321억 달러로 집계됐다. 협회 측은 수주 규모가 3년 만에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해외건설 수주 조정기가 결실한 성장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협회장은 특히 아시아 토목·건축과 중동 토목·산업설비 분야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해외건설 수주 특성상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 향후 수주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심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본격적인 수주 증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켓(IHS Markit)에 따르면 올해 세계건설시장은 작년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며 약 11조6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협회장은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이 우리 해외건설의 주력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유가로 발주 물량이 줄고 지적학적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중동시장은 당분간 수주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시아 시장은 작년과 비슷한 150억 달러 내외, 중동은 100억 달러 내외로 각각 수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협회장은 아시아에서 특히 베트남 시장을 주목했다. 그는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1억 명이 가까운 인구, 급속한 도시화, 풍부한 인프라 개발 수요 등으로 시장 환경이 좋아 연간 30억 달러 내외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 외 싱가포르의 20억~30억 달러 수주를 기대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산유국 중심으로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협회장은 “올해 5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할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에서 토목 인프라와 석유화학 등 산업설비 프로젝트 수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수주금액은 대규모 산업설비공사 수주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지만 국가별로 20억~50억 달러를 수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해외사업에 대한 희망을 건설업계 의지와 정책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사 CEO 간담회를 했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열고 있다. 해외건설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건설사 CEO,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한다.



이전기 해외건설협회장이 작년 12월 20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취임 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300억 달러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복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해외수주 최대 애로 ‘금융보증’ 플랫폼·스마트시티 수출 지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정부 관심, 업계 입장선 대환영 프는 베트남, 싱가포르·印尼… 해외 수주 300억 달러대 전망 EPC 프로젝트 경쟁력 위해선 조달 부문 개선 원가절감 돼야

이 협회장은 해외사업을 준비하는 건설사 CEO들이 금융보증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건설사 CEO들과 얘기를 나누면 금융보증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듣는다”며 “현지 정보 수집, 입찰 방법에 관한 노하우는 많이 쌓았지만 금융에 대한 애로사항은 여전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민에 ‘단비’가 내렸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총 6조 원의 ‘글로벌 플랫폼·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정책을 보면 사업 위험도(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에 따라 펀드, 정책자금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다.

이 협회장도 기존 정부 지원책과 비교하면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실 자본력이 아직 미미하다”며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해외사업에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중전에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가 해외 사회기반시설 관련 투자개발사업에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규모는 3730억 원(정부 400억 원, 공공기관 1600억 원, 민간 1730억 원)으로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 조성액보다 턱없이 적었다.

이 협회장은 “중전에 해외인프라사업의 97%는 EPC(설계·조달·시공)사업이었고, 약 2~3%가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이었다”며 “6조 원의 금융지원은 시의적절하며 바로 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건설사의 해외사업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협회장은 건설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투자,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경제 전문 주간지 MEED에 따르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석유가스 부문 EPC계약 순위 업체 톱20(2017년 10월~2018년 9월 기준)에 국내 업체는 단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이 협회장은 “우리 건설기업들은 아직 후발주자가 넘보지 못하는 기본설계, 비용절감을 위한 공기 단축 공법 등을 포함한 기술경쟁력 배양에 힘써야 한다”며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및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업과 협력을 비롯해 인수·합병(M&A)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EPC 프로젝트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조달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가격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건축·주택 전문가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회를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정도 했고, 인프라 등 공사에 대한 부분이 낫지 않다”며 “해외 나라마다 다른 특성을 인지하고 건설업계가 어느 수준의 기술로, 어느 정도의 자본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건설사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힘주어 말했다.

이 협회장은 “협회는 올해 정보지원 역량 강화와 우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수주 확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동반 진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해외건설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중소·중견 건설사의 동반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현지 사업 관행 습득이나 협력업체와의 조율, 기자재 조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능력이 부족하므로 관련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시설

文 대통령 경제행보, 기대가 실망 안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적극적인 경제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했고, 어제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스타트업인 메이커스페이스를 방문했다. 7일에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달 중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대·중견기업인을 초청하는 미팅 행사도 추진 중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어느 때보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때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소통하고 애로를 챙기는 것은 기업의 기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 극복을 위해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혁신을 함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기대를 가질 만하다.

관건은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의 과감하고 일관된 실행이다. 결국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없앤다는 믿음을 주고 기업할 자유만 높인다면 투자는 절로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게 된다. 산업 혁신도 마찬가지다. 혁신의 지름길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 인력에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그 전제 또한 파격적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 가정신을 북돋는 것이다. 노사 대립 구도와 대기업 ‘귀족노조’의 기득권

을 타파하는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우선 과제다.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고질적 경직성은 재계가 수없이 절박하게 해결을 호소해온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다.

새해 초 주요 대기업들이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으로 미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지만, 규제에 막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실기(失機)한다면 공염불이다. 문 대통령도 그동안 여러 차례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금지된 것 말고는 일단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지만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도 지난해 카풀서비스도 입마져 택시 기득권에 막혀 무산됐다.

더 이상 규제 개혁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비상한 규제 철폐 조치 없이는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렵다. 얼마 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규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갔다”며 “규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토로했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적폐정산을 내세운 반(反)재벌·친(親)노동 정책이 필연적으로 기업 규제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조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방향을 수정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한 킷



새해엔 부디...

여명이 밝아오자 철새들이 일제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를 날아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변하겠다던 국회는 아니나 다를까 소모적인 정쟁에 바람 잘 날 없었고, 이에 국민은 분노하고 실망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부디 당리당락,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일명 ‘철새정치’가 아닌 선한 마음으로 진정 주권자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정치를 기대한다.

오승현 기자 story@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 나 × LG Objet

프리미엄 프라이빗 가전 LG 오브제



TV | 오디오 | 냉장고 | 기습공기청정기  
하드스페이스 | MERIDIAN technology | 저소음설계 | 굿나잇케어